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사 학 위 논 문

한국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16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황 슬 기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이창원

한국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iveness of Korean senior employment
program



HANSUNG
UNIVERSITY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황 슬 기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이창원

한국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iveness of Korean senior employment
program

위 논문을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황 슬 기

국 문 초 록

한국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황 슬 기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노인들의 삶의 현실이다.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빈고(貧苦), 건강상실로 겪는 고통을 병고(病苦),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소외감을 고독고(孤獨苦), 사회적인 역할 상실에 따른 고통을 무위고(無爲苦)라 한다. 이 4고는 단순한 노인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중대한 노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정책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4고의 문제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에 따라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효율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근거가 되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실태조사 데이터(2차

데이터)를 통계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최근 3년간의 조사로 2010년, 2012년, 2013년에 전국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2011년 조사 미 실시)

분석방법으로는 SPSS ver 19.0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Duncan test를 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에 따른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 대한 분석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모든 유형이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사업 유형별 소득보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확인해 보면 공익형이 가장 높은 값으로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건강개선과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서는 교육형이 높은 값으로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인력파견형은 건강개선과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요인별 소득보충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거주지역이 농어촌일 때 소득보충에 대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개선에 대해서는 남성이 더 높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종교가 있는 노인들보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노인들에게서 노인 일자리 참여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에 참여 하지 않는 노인에게 효과가 더 있다고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은 무학(글자모름)에서 가장 낮았고, 중졸, 고졸, 대졸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인구 통계학적 요인별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서 근무기간이 5개월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높을수록 효과도 높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셋째,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이 참여 후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소득보충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는 정(+)의 영향을 주었다. 시장형은 소득보충과 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건강증진 인간관계에는 영향을 주었다. 반면 인력파견형은 소득보충에 정(+)의 효과를 주었으나 건강개선, 인간관계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에게 어떠한 효과성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었으며, 노인의 욕구에 맞추어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사업의 효과로 정부 재정 절감 및 경제적 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

【주요어】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노인 일자리 효과성, 노인 복지, 노인 문제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3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노인복지 정책	5
1) 사회복지 정책	5
2) 사회복지 전달 체계	7
3) 전달 체계 효과성	8
제2절 노년기의 일과 사회적 관계	9
1)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	9
2) 노인의 사회적 관계	10
가) 활동이론	10
나) 교환이론	11
다) 지속성이론	12
라) 자원이론	13
제3절 노인 일자리 사업	14
1) 노인 일자리 사업의 배경	14
2)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목적	14
3) 노인 일자리 사업 법적 근거	15
4)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체계	15
5)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18

6)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19
제4절 외국의 노인 고용 관련제도 및 정책	21
1) 일본	21
2) 미국	24
3) 영국	26
제5절 선행연구 검토	27
1)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27
제3장 연구 설계	35
제1절 연구 모형 및 가설의 설정	35
1) 연구 모형의 설정	35
2) 가설의 설정	36
제2절 연구 분석방법	41
1) 구성과 특징	41
2) 변수의 측정	41
3) 분석 모델	45
제4장 연구 결과 및 논의	46
제1절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6
1)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대한 실태 분석	46
2) 측정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48
3) 측정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50
제2절 노인 일자리 사업 효과성 분석	52

1) 사업 유형별 효과성 분석	52
2) 인구통계적 요인별 효과성 분석	60
3) 사업 유형별 참여 후 효과성 분석	70
제5장 연구결과 및 제언	8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1
제2절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유형별)제언	83
1) 공익형 사업	83
2) 교육형 사업	84
3) 복지형 사업	85
4) 인력파견형 사업	85
5) 시장형 사업	86
제3절 정책적 제언	87
1) 전달 체계 구축 및 인프라 재조정	87
2) 소득 보장 체계	88
3) 일자리 균등	89
참고문헌	91
ABSTRACT	111

표 목 차

<표 1>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체계	17
<표 2>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별 수행 실적 현황표	17
<표 3> 사업비 총 예산액 및 사업량	18
<표 4> 사업유형별 예산 지원 기준	19
<표 5>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19
<표 6>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 정의	20
<표 7> 소득보충에 관한 선행연구	30
<표 8> 건강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31
<표 9> 인간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32
<표 10>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	34
<표 11> 노인 일자리 사업 효과성 연구 모형	35
<표 12>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에 대한 가설	38
<표 13> 참여 대상자 특성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가설	39
<표 14> 참여 대상자 거주지역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가설	40
<표 15> 종속변수	42
<표 16> 독립변수	43
<표 17> 통제변수	44
<표 18> 독립변수에 대한 실태 조사	47
<표 19> 측정변수에 대한 분석	49
<표 20> 측정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51
<표 21> 사업유형별 소득보충	53
<표 22> 사업유형별 건강개선 분석	55
<표 23> 사업유형별 인간관계 분석	57
<표 24> 사업유형별 자기효능감 분석	59
<표 25> 인구통계적 요인별 소득보충에 대한 차이 분석	62
<표 26> 인구통계적 요인별 건강개선에 대한 차이 분석	64
<표 27> 인구통계적 요인별 인간관계에 대한 차이 분석	66

<표 28> 인구통계적 요인별 자기효능감에 대한 차이 분석	69
<표 29>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소득보충에 미치는 영향 분석	72
<표 30> 일자리 사업 참여 후 건강개선에 미치는 영향 분석	75
<표 31>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78
<표 32>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8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프로그램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참여 효과성의 유무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6,250,986명으로 총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2017년에는 한국 사회의 노인 인구가 14%인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12). 현재 대한민국은 전(全)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고령화 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앞으로 15년 후인 2030년에 1,269만 명에 달하여 전체 인구의 24.3%를 차지하는 ‘초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낮아진 출산율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은 노인 인구를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이러한 노인 인구 증가는 국가 발전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산업화·현대화로 인해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로 변화됨과 동시에 가족부양기능이 약화 되어 노후 생계의 책임은 가족 중심에서 사회중심으로 이동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은 경제적 지원을 자녀로부터의 비공식적인 소득 이전이나 공적연금제도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과 함께 공적연금제도 운영 또한 연금의 기여금과 수급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신동면 외, 2003). 연금과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노인관련 복지서비스 수요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에 압박을 가져오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정영자, 2011).

노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평균수명이 증가하였다. 은퇴 하더라도 신체가 건강하고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동에 대한 노동 참여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은퇴가 가속화 되어 이러한 욕구는 충족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연령은 60세~65세 선에 머무르고 있

는데 경제적 난항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등으로 은퇴 연령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빨라지고 있다. 퇴직이 제도화됨에 따라 사회적 역할과 기회가 박탈당한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경제적 안정, 사회 참여 등을 위해 재취업과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근로현장이 매우 부족하다.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우리 사회에서 알맞은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일은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이준우, 2013).

정부는 이러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 하였다. 전문적이고 구조적인 노인 일자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기관 등으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노동의 참여 기회를 확보하여 소득보장,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 증진 등으로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덜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노인 일자리 사업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공공분야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민간분야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를 국가(정부)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을 하거나 혼합적 전달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혼합 체계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시장원리의 장점인 효율성과 선택의 자유, 접근성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고용노동부 사업의 대부분은 지방의 지청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조직의 다양성을 높이게 된다(탁현우, 2015).

노인 일자리 사업의 5가지 유형은 혼합적 전달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집행 조직 및 수행기관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유형별 특성에 따른 효과도 역시 다를 것으로 본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전달 체계에서 일자리 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연구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시행되는 서비스 전달 체계의 실태조사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

의 참여자들이 참여 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연구결과를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써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자 했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가 참여 후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즉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만족도 ‘매우 만족’에서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측정하여 이 둘 사이에 응답 범위로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 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경험적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실태조사 데이터(2차 데이터)를 통계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헌연구 하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 실태조사는 참여자의 실태 파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전국 규모로 실태조사가 시작되었다. 실태조사는 참여 노인에 대한 총괄적 기초데이터 확보하고,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과 참여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2016년까지 4차례 시행되었다. (2007년, 2010년, 2012년, 2013년)

본 연구에서는 2007년을 제외하고 2010년, 2012년, 2013년에 전국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2010년 조사는 모집단 242,318명 중 1,500명이 조사의 대상이고 2012년 모집단 222,381명 중 2,005명이 조사의 대상이고 2013년 모집단 234,867명 중 2,022명이 조사의 대상이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용 구성은 모두 5장으로 구성 하였다.

제1장에서는 서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연구의 방법과 연구 내용의 구성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써 노인복지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 그리고 효과성을 살펴보고 노인들의 일의 필요성과 그에 근거

하는 이론 (활동이론, 교환이론, 지속성이론, 자원이론)을 알아보았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배경, 목적 및 법적 근거, 추진 체계, 기관별 역할, 예산,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인간관계, 소득보충, 건강개선, 자기효능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각 변수의 관계를 규명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 하였다. 또한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변수 측정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고, 표본 구성과 분석 모델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 분석 및 결과를 논의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 일자리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정책적 제언 및 프로그램 (유형별) 제언을 하였으며,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 복지 정책

1)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로, 정책은 정부가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지침이다(구재관, 2015). 사회복지가 실제 이뤄지도록 위해 전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 인간의 복지와 행복 또는 안녕 등을 도모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포괄범위는 좁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지원 하는 것이며, 넓게는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정책, 교육정책, 의료보장정책, 노동시장정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현외성, 2008).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김종명 외, 2009). 첫째 인간의 존엄성 유지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종, 종교, 연령, 성, 교육수준, 경제수준, 사회적 신분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통해 존엄성을 확보·유지해야 하고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립성 유지이다. 사회복지정책이나 구체적 복지 프로그램의 본질적 목표는, 대상자가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립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영위할 수 있는 데까지 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실천이 목표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개인적 성장과 계발이다. 인간은 정상적 교육이나 자기계발의 기회 혹은 공평하고 정상적인 출발 기회를 부여 받게 되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물론 일부 경제적 환경, 육체적 능력 및 사회 환경적 여건 등에 따라 그 성장과 발전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이나 가정 혹은 집단이나 지역사회, 국가 등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전제하면서 각자 본인의 능력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데 중점적 목표를 두고 있다.

넷째, 사회통합과 안정이다. 사회통합이란 사회구성원 간에 결속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이상을 공유 하며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섯째 경제성장과 안정이다.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이 결국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적 자본의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 또한 건강과 소득보장, 노인시장 정책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은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그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생산성 그리고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노인복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대상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노인복지란, 모든 노인의 생활상의 안정과 의료 또는 교육, 취업 등의 사회적 제공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 정책을 의미한다. 협의의 노인복지란 퇴직과 빈곤 또는 질병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욕구불만, 고독, 생활 빈곤, 삶의 의미를 잃은 노인들에게 개별적 공적 부조, 생활지도, 자립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나 육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과 노인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조직 서비스이다.

노인복지정책의 개념은 모든 노인의 생활상의 안전, 의료, 직업의 보장, 주택, 교육, 여가 및 그 외의 사회적인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정책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노인이 인간으로 생활하는 기쁨을 가지며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는 단순한 빈곤상태에 있는 자를 구제하는 정책적 사업 또는 보호의 개념이 아니라 노인들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아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도록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즉 노인복지란 노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의 협력이다.

2) 사회복지 전달 체계

사회복지 전달 체계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에 근거하여 공급자와 공급자 또는 공급자와 수요자(클라이언트, 수혜자, 소비자)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 장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복지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로 전달되는 과정, 복지 서비스 공급자 간, 공급자와 수요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와 인력구조를 의미한다.

Gilbert와 Terrel(1888)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지역 사회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정의하였고 Friedlander와 Apte(2002)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공·사 복지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공공부분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분인 개인, 기업, 사회복지법인, 시설, 종교단체 등은 사회복지 공급자이며, 그 수요자는 사회복지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로서 복지 욕구를 지닌 모든 국민과 지역사회가 해당된다(김종명 외, 2009).

서비스 전달 체계는 운영주체별로 구분하는 데, 이는 공공복지 전달 체계(공공전달 체계)와 민간복지 전달 체계(민간전달 체계)로 나뉠 수 있다. 공공복지 전달 체계는 정부나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적정 요건을 갖춘 수혜자에게 일정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간복지 전달 체계는 개인, 기업, 사회복지법인, 시설 등 수혜자에게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체계를 의미한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구성함으로 조직과 예산 그리고 정보와 인력 등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표에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수립된 사회복지 정책이 그 대상자에게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대상자들이 직접 서비스를 받게 되는 수단이므로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겠다(박만섭, 2016. p.26).

복지서비스가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입안(立案)이나 집행 과정에서

서로 협조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 간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민간단체, 지역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노인 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달 주체에게만 의존해서는 힘들다. 여러 주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있느냐가 서비스 효율적인 전달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김양순, 2006).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분이 협력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게 될 때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자의 욕구가 충족 될 것이다.

3) 전달 체계 효과성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효과성이란,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에게 의도하였던 변화를 이루어 냈는가를 보여줌으로 인간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노인 복지 서비스에 투입된 자원이 대상자(클라이언트, 노인)의 욕구와 문제해결에 얼마나 적절하였고 또한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대상자의 자립 또는 복지증진에 목표가 맞추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효과성은 그 가치가 대상자의 자립과 복지증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맞추어 지는지에 따라 문제의 관심이 기울어진다(양정하 외, 2008, p.124).

어느 프로그램이나 항상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주어진 목표를 진정으로 달성했는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즉 목표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효과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는 사업의 목표가 확인되고 목표의 구체화가 전제될 때만이 가능하며 정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만이 효과성에 부합한다고 본다.

제2절 노년기의 일과 사회적 관계

1)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

노인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성취감의 원천으로 자아정체감이 상승되며, 직업을 통해 얻은 수입 과 사회적 지위 및 경험은 삶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의 성격을 조형할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이명예, 2005).

노년기에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의 생산성 향상과 사회보장비용의 절감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권중돈, 2007).

노인에게 노동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역할 수행에 대한 자부심과 유용감, 자아정체감을 갖게 해 주는 매우 유용한 기능을 한다(임설훈, 2012). 그러므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다양한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여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함께, 삶의 효과성을 더욱 증진 시킬 수 있다.

통계청(2008)에서 실시한 고령자의 취업욕구에 따르면 은퇴 후 근로 희망자는 57.1%로 과반수가 넘었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 30.8%가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노인들은 은퇴 이후에도 지속해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이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한국 노인의 경제적 생산 활동은 주로 농업이나 단순 노무직에 국한되어 있으며, 사회 참여 봉사과 같은 생산 활동에 대한 참여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정경희 외, 2005).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일을 통한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뿐 아니라 노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명성혜, 2008). 고학력의 노인들 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전문적 기술이 있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생산적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을 다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인정하여서 다양한 보상 방안과 안정적인 사회를 조성하려는 정책의 하나로 해 온 만큼 이와 같은 인식이 본 연구를 실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2) 노인의 사회적 관계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면 질병과 고독의 삶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위의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노인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의 증가와 삶의 질 상승 등으로 대다수의 노인이 사회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일에 대한 욕구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년기 일과 일자리 사업은 노년기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중 노인의 일자리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주고 있다. 또한 노년기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며, 이에 관련된 이론으로 노인 사회학 이론 중 활동이론(Activity Theory), 교환이론(Exchange Theory), 지속성이론(Continuity Theory), 자원이론(Resource Theory)이 해당한다.

활동이론이란 노년기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 노후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교환이론은 노인의 새로운 자격이나 지위를 획득은 사회에 균형을 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속성이론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을 유지해주며, 자원이론은 자원을 가진 노인이 노년기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위 이론들은 모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강조점을 두기에 미시적 이론이며 이론들의 배경은 노인의 역할과 가치를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서종일, 2013).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각 이론을 정의하고 연구한 후 노년기에 일한다는 것이 노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알아보았다.

가) 활동이론 (Activity Theory)

Havighurst와 그의 동료(Cavan, Burgess, Havighurst & Goldhammer, 1949; Havighurst & Albrecht, 1953)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장된 활동 이론(activity theory)은 Lemon(Lemon et al, 1972)에 의해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에 입각한 이론으로 공식화되었다.

활동이론이란 사회적 활동의 참여도가 높으면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과 생활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는 것이다.

Lemon(1972)은 활동이란 개인의 자아개념(self-concept)을 다시 확립하는 데 필요한 역할지지의 제공을 말하며, 활동이 친밀하고 빈번할수록 역할지지는 더욱 확실해진다. 역할지지는 또한 긍정적인 자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생활적인 만족도를 높게 지속시키는 데 연관성이 있다.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제약을 받게 된다면 자아를 평가함에 있어 위기를 가져오고 또한 부정적 자아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결국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과 사회적 만족감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활동이론에 의하면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활동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노년기에도 많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실된 역할활동을 대신할 만한 다른 활동의 참여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반적 활동을 보면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친구 또는 이웃 방문 등 비공식적 1차 집단의 활동 상관관계는 대부분이 입증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도 생활만족도와 활동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Lemon et al, 1972).

노인이 되어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면 삶의 만족감은 더욱 높게 유지 할 수 있다(윤민혁, 2000).

나) 교환이론 (Exchange Theory)

Homans(1961)는 경제학의 공리주의 및 심리학의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교환이론을 통하여 사회적인 행동을 설명하고자 했다. Homans(1961)와 Blau(1964)의 교환이론 (exchange theory)에서 볼때는 노인들의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노인의 사회 기여와 이에 대한 사회지원의 비용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보았다. 즉 노인이 사회에 환원하는 자원의 불균형을 이룰 때 노인들은 오히려 의존과 수동적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개인 간, 집단 간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자원을 주고받는 관

게로 보고 사회는 이 교환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구체화된다고 보고 있다(김영옥, 2009). 노년기에 양산되는 문제에 관한 교환적인 이론적 접근의 대책으로는 새로운 지위나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노인이 지역사회 차원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할 수 있다(이팔환, 백남덕, 2000).

노인 개인에게 퇴직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주고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 상실되기 쉬운 사회적 가치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게 해주어 아직도 자신이 사회에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가치를 갖게 해주며, 소외감을 극복하게 해 주는 등 노년기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생의 보람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윤민혁, 2000). 또한 노인의 새로운 자격이나 지위를 획득할 목적으로, 노인의 자원에 대한 가치를 높이거나 혹은 노인의 권력 증가로 균형적이고 상호의존적 교환관계를 성립시키는 노인 활동을 대안으로써 제안하였다(최성재, 장인협, 2001). 이는 정신적 보상을 포함한 사회적인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의 가치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영옥, 2009).

다) 지속성이론 (Continuity Theory)

Atchley(1977)는 활동은 인생의 초기부터 참여해 온 연속적 활동으로 노년기에도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전생애(全生涯)적 활동이라 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계속 이론의 차원으로 전 생애를 통한 성장발달의 연속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의 인성적인 특징에 의해 노년기의 대처 및 적응과정을 설명한다(김미혜, 정진경, 2002). 다시 말해 활동이론이 노년기의 새로운 역할의 대체를 강조하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지속이론은 생애 전체를 통한 성장과 발달의 연속적인 성격에 그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인성적 특징에 대한 노년기의 대처와 적응과정을 설명하였다(김미혜, 정진경, 2002). 이러한 대체활동은 노년기의 역할 상실과 고독감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회복하여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김용순, 2005).

상실된 역할 또는 유사한 역할로 대체 해 전형적 사회적응방식을 유지함으로써 같은 행동유형을 지속하려고 한다는 것이며, 노인에게 긍정적 적용이 가능한 것

은 개인의 적응형태와 기능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기능을 하고, 노화 과정에서 불연속 또는 단절을 예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노인들은 퇴직 후에도 이전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생활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박양숙, 2012).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참여 노인들의 규칙적인 생활과 노동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더 좋아지는 등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자리 사업 참여 후 기분(자신감 및 외로움)의 변화에서 참여 노인들의 기분에 변화가 있다고 나타난 것으로 보아 노인의 규칙적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이 노인의 정신적 건강 및 신체적 건강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 낸 것이다(이수희, 2010).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와 노년의 생활만족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인간은 연령을 초월하여 사회인으로 해야 할 역할이 필요하다(최순남, 2007). 또한 Bull과 Aucoin(1975)은 노인이 건강하고 사회 및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활동의 참여의 지속률이 높다고 하였다. 노년에 노인이 생활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role activity)을 찾아야하며 역할지지(role support)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인적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조규범, 2005).

라) 자원이론 (Resource Theory)

Foa(1971)과 Dowd(1980)의 자원이론(Resource Theory)은 노인이 가진 자원이 노년기의 생활만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상대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생활만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교환이론의 이익과 손실이라는 경제 원리를 중심으로 보상과 처벌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따른 설명이다(박종우, 김춘택, 2006).

사랑, 지위 및 권위, 사회적 지원, 경제력, 건강지각과 신체기능 등의 다양한 자원이 노년의 생활만족을 결정적 변인이다(서경현, 김영숙, 2009). 따라서 노년기의 활동이론, 교환이론, 지속이론, 자원이론은 노년기에 사회적 프로그램을 지

지하는 이론이다.

본 연구는 활동이론, 교환이론, 지속성이론, 자원이론을 근거로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 후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노인들이 은퇴 이후에도 이전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통해 생활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속해서 참여할 기회와 일자리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3절 노인 일자리 사업

1) 노인 일자리 사업의 배경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시작은 노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방안의 한 부분으로써 제16대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총 1,347건의 대선 공약 중에서 노인 사회적 일자리 50만 개 창출이란 공약으로 핵심공약 177건에 선정됐다. 관련 공약으로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운영(핵심 공약), 지역사회시니어클럽 확대(일반 공약)가 있다. 하지만 이후 실천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약목표는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 분과에서 노인 일자리 30만 개 창출로 수정이 됐고,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대통령정책실 고령 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대책팀에서 만들어졌으며, 마련된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a Korea 2008 Action Plan)」 안에 포함돼 제35차 국정과제보고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한국보건 의료연구원, 2016).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가의 중기 또는 장기적 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에 반영되어 세부과제로 추진되었다.

2) 노인 일자리 사업 목적

노인 일자리 사업이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속 노인 문제에 대비하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운

영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 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요 노인 복지사업의 하나이다(이석원, 임재영, 2007; 황선영, 2011).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 일을 통해 노인의 소득보충 및 적극적 사회 참여와 건강증진 등이 주된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 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은퇴 전후 준비 등에 그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11).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라는 것은 일을 하려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경륜을 활용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 공공·민간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하다(이석원, 임재영, 2007).

이와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 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 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절감과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겠다(김승래, 2015).

3) 노인 일자리 사업 법적 근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UN에서는 각 정부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은 고령화 국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그 후 2004년 보건복지부의 국가과제로 선정하여 2006년 출산·고령 사회 기본법 제11조에 확정되었다. 그 후 노인복지법 23조, 24조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4)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체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추진 체계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사업수행기관 등으로 나뉜

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법령과 제도를 운용하며, 예산을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 등의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치를 근거로 2005년에 만들어지게 됐다. 현재 전국 5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노인 인력 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주관하는 가장 상위기관으로서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중앙본부와 지역본부로 나뉘어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사업의 심사·평가, 실무자 및 참여 노인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와 데이터베이스(D/B)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자원과 지역자원을 활용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기반, 시장형 일자리를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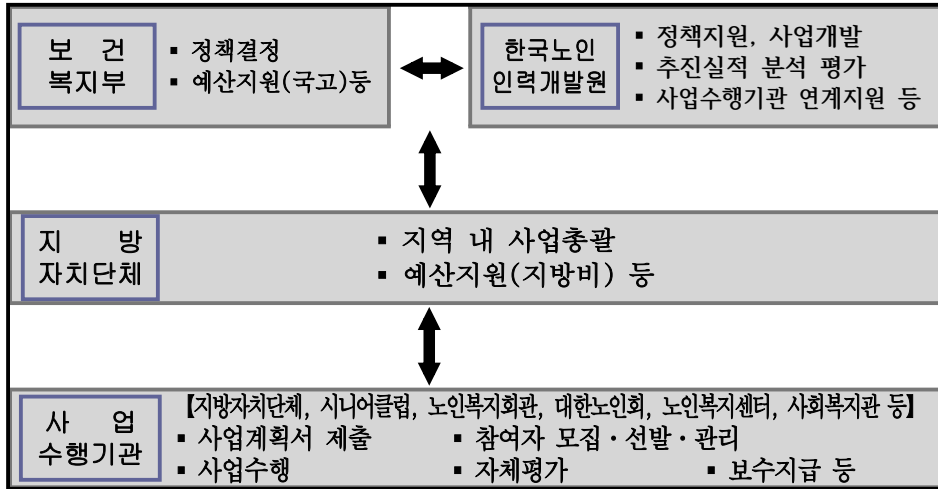
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획 심사하고 평가를 지원하며 지역 내 순수 민간분야의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한다. 또한 노인에 대한 자원을 개발하며 정보화를 통해 인력풀을 구축 및 제공하며 지역자원 조사 및 연계 활용 등을 통해 민간분야 기반을 조성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시·도에서 진행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추진계획을 수립 및 재정 지원하고 시·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총괄·조정·심사를 말한다. 그리고 홍보를 추진하며 시·도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사업 수행기관의 전담인력을 교육하며 노인 일자리 모니터링사업을 총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노인 일자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 심사하며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과 행정을 지원한다. 그 외에 사업 홍보와 모니터링, 지역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발대식을 수행하고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사업수행기관은 노인복지 관련 부서,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이 있다. 사업 계획과 실행 및 참여자 모집, 등록, 선발, 교육, 홍보, 현장 투입지원과 보수지급, 근무 관리 등의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표 1>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체계



출처 : 보건복지부, 「2007년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 안내」

<표 2>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별 수행실적 현황표

구분	지자체	노인 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 노인회	사회 복지관	기타	총계
공익형	66,944	18,628	8,817	18,933	5,847	7,750	126,919
	53%	15%	7%	15%	5%	6%	100%
교육형	761	8,328	2,802	2,489	1,120	1,981	17,481
	4%	48%	16%	14%	6%	12%	100%
복지형	5,592	19,599	4,521	6,911	6,180	4,496	47,299
	12%	42%	10%	15%	13%	10%	100%
인력 파견형	7	1,638	3,072	1,315	70	2,987	9,089
	0%	18%	35%	15%	1%	27%	100%
시장형	55	2,276	8,821	2,820	516	885	15,373
	0%	15%	57%	18%	3%	6%	100%

출처 : 시니어클럽, 「2010년 시니어클럽 10주년 기념 전국텔레이토론 자료집」 재정리

5)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예산의 경우 국가에서 일부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 노인 일자리 사업비는 국고 50%, 서울시 30%로 부담하고 있으며, 기타 15개의 시와 도에서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고르게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비 예산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각 일자리 사업 유형별 예산 지원 내용은 각각 다른 상태이다.

<표 3> 사업비 총 예산액 및 사업량

구 분	2010년	2012년	2013년
총예산액 (국비기준)	1,366억원	1,678억원	2,285억원
사업량	186,000개	220,000개	240,000개

출처 : 보건복지부, 「2012~2013년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 안내」 재정리. pp.3-5,

공공분야(공익형, 복지형, 교육형)는 1인 예산 지원기준으로 월 20만원과 부대비용은 11~15만원 정도로 운영된다.

민간분야(인력파견형, 시장형)는 참여자 1인 예산 기준이 10~15만원으로 운영하도록 지원되고 시장형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고 그 해부터 3년간 참여자에게 1인당 공동작업형은 130만원, 제조판매형은 15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표 4> 사업유형별 예산 지원 기준

유형 (구성비율)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근무시간 (월)
		인건비 (월)	참여 기간	부대경비 (년)	계 (년)	
공익형(45%)		20만원	7개월	11~13만원	155만원	36~40시간
교육형 (15%)				13~15만원		20시간
복지형 (25%)				13~15만원		36~40시간
인력파견형 (5%)		사업자체 운영기준에 따름	연중	10~15만원	10~15만원	근로 계약시간
시장형 (10%)	공동작업형		연중	130만원(3년)	130 만원	
	제조판매형		연중	150만원(3년)	150 만원	

출처 : 보건복지부, 「2012년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 안내」 재정리. p.14.

6)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크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분야(사회공헌형)와 민간분야(시장진입형)로 나뉘며, 유형을 구분해 보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으로 나뉜다.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 참여 요구에 대응하는 일자리이고, 민간분야 일자리 사업은 소득창출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자리이다.

<표 5>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

구 분		유 형	설 명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분야 (사회공헌형)	공익형	• 노인 일자리 예산에서 참여 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
		교육형	
		복지형	
	민간분야 (시장진입형)	인력파견형	•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 하고 노인 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
		시장형	

출처 : 보건복지부, 「2011년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 안내, p.8.

<표 6>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별 정의

구분	유형	정의	일자리 예시
공공 분야	공익형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공공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업무 영역(환경, 질서유지, 시설관리 등) 및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 등을 위해 창출된 일자리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급식지도 및 지원) • 지역사회환경개선 보호 (환경 개선 사업)
	교육형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 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하는 일자리	• 1·3세대 강사 파견 (아동 예절 교육활동) • 숲 생태 해설 (숲 생태 정보전달)
	복지형	사회와 경제 또는 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 가운데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서비스 확대, 계획하고 이용자들이 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 노인 돌봄 지원 (독거노인 가사 지원) • 장애인 돌봄 지원 (장애인 가사 지원)
민간 분야	인력 파견형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수료했거나 혹은 그와 관련 있는 업무 능력의 경험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일정 근무기간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일자리	• 주유원 파견 (주유서비스 및 관리) • 경비원 파견 (아파트 및 상가 경비원)
	시장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을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 식품제조 및 판매 (참기름, 스낵 등 제조) • 지하철 택배 (지하철을 이용하여 수화물 배달)

출처 : 보건복지부, 「2010년~2013년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 안내」 재정리

제4절 외국의 노인 고용관련 제도 및 정책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으로 노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었다.

대부분 자본주의 성숙기에 국가의 사회보장정책(공적연금)을 확충하고 고용정책을 시행하여 노후소득 보장 대책을 세웠다. 이처럼 경제활동인구가 노인 인구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을 때, 이미 형성된 사회보장제도는 상당 기간동안 그 틀이 유지 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의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복지국가 이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1) 일본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복지대책이 늦게 시작되었으나 각종 심의회, 연구회의 전문가들과 논의과정을 통하여 기본 틀을 마련하고 정부의 추진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를 하기위해 노력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였다(엄기옥, 2001).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개념과 대상사업이 불분명해 사업이 중복된다거나 혹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고재욱, 2008). 그러므로 이에 따른 적용대상을 검토하고 법제도 강화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고용안정법에 기초하여 행동조치적 차원으로 60세까지 정년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65세까지의 모든 노인이 취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으며 고령자고용정책을 강력히 시행해 나가고 있다.

1971년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60세 이상의 노인을 일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1년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으로 정년의 연장이나 취업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과 함께 노인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와 정년을 60세로 확보하였다. 1994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60세 정년을 의무화하였다. 2004년의 개정안에서는 정년 연령을 계속 늘려 65세까지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가 되었다. 이 밖의 연령

차별 금지를 위해 채용 공고 시 이유와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고용은 안정되어 있고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도 발달되어 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하고 싶은 의욕만 있다면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다(박주월, 2009).

고령자와 관련한 주요정책 방향은 지식과 경험 활용을 통한 고용확보, 준고령자의 재취업지원,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노동정책이 개발됐으며 이 정책들은 현재 매우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부족한 인력을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세계에서 노인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또한 일본은 실버인재센터는 보조금을 사무국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고 사업실적에 따라 얻은 수익금을 참여 노인에게 배분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인센티브제) 직접 노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노인 일자리 수행 체계로는 정보보조 민간사업과 민간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NPO 등이 있으며 특히 실버인재센터, 고령자협동조합, 고령자사업단이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특징은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고령자가 건강하고 인간답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개호보험제도와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고령자의 은퇴 시기를 늦추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촉진을 강조한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원확보가 미비한 것과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노인복지정책의 확대에 근로의욕과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법제연구원, 2003). 일본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법규와 정책이 잘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기 은퇴와 명예퇴직이라는 제도 때문에 계속 노동이 가능한 노인 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일본의 체제를 잘 답습하여 정년 연장이나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할 것이다.

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1) 실버인재센터

일본 실버인재센터는 전국에 지역인재센터를 두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분야의 공익형 일자리의 사업추진목적이 흡사하다.

우리나라의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와 현안을 예방 및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지역사회와 상호 교류 및 연대를 목표로 하며 사회공헌과 보람을 가질 기회를 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 사업에는 65세 이상의 노동 의지가 있으면서 능력을 갖춘 고령자가 참가하며 임시적·단기적인 취업, 또는 기타 가벼운 업무 취업을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익형 일자리도 단순 노무직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에 의의를 두고 있다.

(2) 고령자협동조합

고령자협동조합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고령자 경영인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성장하는 매우 독립적인 활동단체이자 노인 일자리 사업 기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간분야의 일자리인 시장형과 인력파견형과 같은 형태를 띠지만 예산 집행에서 부대 활동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정 부분 정부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독자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령자 협동조합의 주요 활동으로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고 연구하여서 고령자 백서를 발간하고, 복지, 공원녹화, 물류, 재활용사업 등을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다. 또한 개호보험 시대에 고령자의 자립을 지지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지역복지사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데이케어센터, 개호·방문지원센터 운영, 24시간 순회봉사원, 홈 헬프 파견, 복지용구 판매 등으로 소득창출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체계가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나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의 다양한 수행기관은 노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준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

행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대부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때 노인의 다양한 고용 기회창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민간기업 및 지역사회에 다양한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2) 미국

미국은 국가정책의 하나로 고령자 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이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동시에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취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노인의 학습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 활동과 관련된 취업정책 및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윤종구, 2004).

미국에서는 1933년 와그너 페이셔법(Wagner-Peyser Act)을 제정하여 노인의 고용상담 배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1938년에는 국가자원위원회(NRC : National Resource Committee)를 만들어 노인의 근로 보장을 요구하고 조기 은퇴를 억제하였다. 1962년에는 노인을 위한 직업재교육제도를 내용으로 한 인력개발 및 훈련법(The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을 제정하여 노인의 재취업을 실시하였다(진광식, 2011).

1965년 제정된 노인법(The American Act)은 고령자들이 퇴직 후에도 소득보장과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었다. 1967년에는 고령자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제정하였다. 연령차별금지법은 미국에서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한 채용, 해고, 임금, 노동조건, 기타 고용에 연령을 이유로 한 사업주의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연령 때문에 강제 퇴직하는 일을 없애고 연금수령이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령자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령자 사회 참여 프로그램이다. 55세 이상 저소득층의 빈곤한 실업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시간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실업 노인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공공 교육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환시키도록 하기위한 일을 한다. 훈련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또한 고용 준비가 되어 있는 노인은 즉시 참가할 수 있다. 취업하기 전에 공공·비영리 기관에서 훈련, 상담,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교사보조, 컴퓨터 조작원, 기관 송달원, 아이들을 돌보는 일, 도서관 보조 등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동청이 재정 지원을 하고 고령자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녹지관리 프로그램이다. 녹지관리 프로그램은 공원과 가로수, 공공건물 녹지 등의 시설물을 청소, 녹화, 미화 사업에 은퇴 노인을 시간제로 고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분야 일자리인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일자리는 시간제로 근무하며, 교사 보조, 아이들을 돌보는 일, 미화 사업 등 일자리 유형과 유사하다.

또한 미국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프로그램도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71년 설립된 SASC(Service Agency for Senior Citizens)는 민간차원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노인 뿐 아니라 고령 노동자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관에 유용한 자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고재욱, 2008). 이는 노인들이 고용과 자원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규직을 얻을 기회와 기존 기술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자원봉사 활동이 노인인력활용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나 민간 연구기관에서 노인의 자원봉사 및 사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들을 비영리 조직을 통해 원활하게 제공하고 여기에 노인들이 보람을 갖고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영국

영국의 노인 인구는 20세기 들어 많이 증가하여 이미 1960년대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0년대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1977년부터 시행되었던 고령자 조기퇴직 장려금제도는 1988년 폐지되고 1980년대 경기침체로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한 이후 고령 근로자의 조기 퇴출이 증가하였으나 1988년에 이를 폐지하였고 현재는 노인고용 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인고용 증진 정책은 전체 고용률 80%를 성취하기 위하여 50세 이상 고령자가 지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 요인을 없애고 더 많은 사람이 연금 수급 연령을 넘어 일하도록 지원한다. 1993년에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상한을 59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되었고 고등교육에서의 장학금 대상자도 최근 50세 전반까지로 확대되었다.

영국은 현재 모든 근로자의 모집, 훈련, 승진, 해고에 부당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65세 이하의 강제적 퇴직을 없애 개인이 65세를 넘어 계속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가) 취업 프로그램

영국에서는 은퇴 후 수명이 길어지면서 공적 연금에 의존하는 기간이 늘어나 사회보장 부담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참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고령화에 따라 영국은 ‘뉴딜 50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고용시에 연령을 다양화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선우 덕 외, 2004). 이는 2년 이상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촉진 프로그램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으로 1999년 도입되어 200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프로그램에서는 1:1 개인상담, 1년 이내의 훈련 수당, 6개월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받으며,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할 경우에는 노동당의 소득보존 지원금을 받고, 훈련보조금

을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와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영국 고령자의 직업훈련과 임금 보조금 제도와 같은 정책들을 바탕으로 정부 재정에 기초하여 준고령 은퇴 노인들의 직업훈련과 보조금을 지원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큰 폭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노인고용 관련 정책 동향을 종합하여 보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령자의 지속적 고용과 활용을 위해 무엇보다도 강력한 법규를 제정하고 이를 기업이나 각종 사회 영역에 의무화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우리도 일자리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정년연장, 국가와 기업에 대해 재취업 활동을 우선시하는 법규의 제정, 노인 재교육 제공, 다양한 형태의 재취업 기회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준고령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개발을 위해 관련된 모든 기관이 다각적인 협력과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5절 선행연구 검토

1)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참여 후 효과성(소득 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노인 일자리 효과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고자 함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란,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그들이 살아오면서 얻게 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은 노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나뉘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취업중심으로 연구됐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인력의 증가로 기존의 시장 개념과는 분리된 사회적 일자리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4년 7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김정

임, 2007).

고령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연구 중 고령자 창업지원정책에서 노인의 일자리 사업 참여는 노인의 소득보장, 자녀의 부양부담 감소, 개인의 사회 참여 및 소외감 해소와 사회의 유용인력의 활용으로 인한 산업인력 해소 방안으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한국노인 문제연구소, 2010). 노인 일자리 사업은 개인에게 진정한 자아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 상실이나 배우자 상실, 건강 상실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실을 통해 겪게 되는 노년기의 문제들을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강신옥, 2009).

노인이 일자리를 갖거나 취업을 하면 노인에게 상실감을 주는 무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며, 개인과 가정에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므로 노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유지에 크게 도움이 된다(김소향, 이신숙, 2009). 또한 적절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생활의 질,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사기도 높일 수 있다. 만약 이런 식의 활동을 계속 못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나친 고립으로 무감각 또는 무기력 하게 된다(이명예, 2005).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는 노인들에게 전반적인 소득 보충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도 가져왔으며, 비생산적인 시간을 줄이고 적극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가) 소득보충 요인

소득은 기본적인 생계의 유지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질병이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연금 및 공공부조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은퇴한 노인은 소득의 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노인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인 개개인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여부라 할 수 있다(권구영, 박공식, 2007).

2015년 OECD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50%로,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OECD국 평균인 13%보다는 4배에 가까운 수치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 소득 대비 노인 평균 수입은 60%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일자리 사업은 2004년도 2만 5천개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8만 6천개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실제 취업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34%에 불과하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80~84세 노인은 17%, 85세 이상 노인은 7.3%에 불과하였다(정경희, 2011).

은퇴 후 노인들은 재취업이 힘들 뿐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낮거나 임시적이고 또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경제소득 역시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보장소득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편이다. 또한 기타 소득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가족부양에 의존하는 노년층이 많아 이 또한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박강석, 2016).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요인 분석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책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노후의 소득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또한 경제상태에 만족하는 노인일수록 사회적 관계에 적극적으로 몰입하여 참여하게 되며 경제상태가 나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숙자, 2000).

그러나 이에 반해 소득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연구도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가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노인들이 전체적인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소득 수준에는 만족하지 않고 있지 않다(서양열, 2004).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을 매개로 노인과 고용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의 노동참여를 통한 소득보장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이승협, 2006).

정부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공공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일자리만을 창출 하고 있다. 경제적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보다는 민간분야의 시장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활성화시키지 못 하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말해 정부의 사업들이 노인이 원하는 실질적인 경제 문제는 해결해주

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이석민, 원시연, 2012, p.208).

<표 7> 소득보충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권구영, 박공식(2007)	· 경제적 상태에 따라 건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노현오 (2015)	·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노후의 소득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김숙자 (2000)	· 경제상태에 만족한 노인일수록 사회관계에 적극적 · 경제상태가 나쁜 노인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서양열 (2004)	· 소득 수준에는 만족하지 않고 있음
이승협 (2006)	· 노동참여를 통한 소득보장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

나) 건강개선 요인

노인이 되면 생물학적 노화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퇴행하며 이에 따라 육체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 또한 노인의 질병은 장기적이고 만성이어서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료비는 경제적인 부담이 되며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도록 만든다.

노인 인구 전체의 의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24.4%였으나, 2013년 34.5%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2년 대비 2015년 진료비를 살펴보면, 70세 이상 진료비가 2002년 2조 1,544억원에서 2015년 16조 2,326억원으로 7.5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연령별 진료비 중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6).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살펴보면 연도별 분석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평균 참여 시간을 적용할 시 2004년 17억, 2005년 43억원, 2006년 78억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임재영, 2007). 의료비 절감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인구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인구집단 간 평균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 지출에서 일자리 사업 참여집단이 낮은 지출 수준을 보였고 건강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로 분석되었다(이석원 외, 2009). 또한 노년기 근로는 신체활동을 증진시킴으로 인지 기능 등의 퇴화를 지연시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조사한 결과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고(이석원, 2008), 노인 일자리의 참여기간에 따라 참여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다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참여기간이 길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종수, 김옥희, 2010).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규칙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인들은 생산적 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함으로써 신체적 건강유지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이준우, 2009).

<표 8> 건강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임재영(2006)	· 2004년 17억, 2005년 43억원, 2006년 78억의 의료비 절감
이석원 외 (2009)	· 건강개선 효과와 더불어 의료비 절감
허성호 외 (2011)	· 인지기능의 퇴화를 지연 시켜 건강유지
이석원(2010)	· 건강 증진효과
강종수·김옥희(2010)	· 노인 일자리의 참여기간 길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음
이준우(2009)	· 경제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다) 인간관계 요인

현대화에 따른 핵가족화로 가족기능의 약화 및 노인들의 가부장적 역할도 약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 상실은 인간관계의 단절 및 고립으로 이어지며 배우자 지인의 상실 또한 노인의 고독에 더욱 악영향을 준다. 노인은 지속해서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 부양 계층으로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변재관 외, 2005).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10년째 1위

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가 29.1명인데 고령자의 경우 60대는 42.4명, 70대는 73.1명, 80대 이상은 104.5명이다(통계청, 2012). 노인들은 이처럼 경제적 빈곤, 사회로부터의 고독과 역할상실, 질병과 같은 문제로 자신의 목숨까지 끊고 있다.

개인은 일을 통해서 직장이라는 사회집단 또는 사회제도에 소속됨으로써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며 친구 관계나 직장동료와의 관계 등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권중돈, 2004). 일함으로써 맺어지는 관계는 교제 뿐 아니라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도록 하게 해주며, 비상시에는 지원 제공자 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의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 특히 타인의 기대(expectation)와 자원(resource)의 감소, 그리고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의 감소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축소되는 노년기에 취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지속 할 수 있다는 것은 노인들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전혜정, 2004).

인간관계는 사회와 연결해주고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며, 인간관계와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가져다주었으며(우국희, 2007)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 접촉과 사قم의 기회를 지속해서 갖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다(김남희, 최수일, 2011). 또한 공식적 사회관계를 강화하고, 이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표 9> 인간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권중돈 (2004)	· 친구, 직장동료 관계 등 인간관계 유지 ·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혜성 (2004)	· 정보 교환 및 비상시 지원제공자 역할 ·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
우국희 (2007)	· 존재 가치 인식 · 인간관계와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
김남희·최수일 (2011)	· 사회접촉과 사قم의 기회를 지속해서 갖게 함 ·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

라) 자기효능감 요인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이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정확하며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일종의 신념이다. 자기 효능감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 자기 통제감 등이 있다.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의 신체 및 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이 경쟁에 뒤처지게 되는 현상은 고령화로 인해 생산현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퇴직제도와 함께 역할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상실은 노인 개인의 자아개념뿐 아니라 사회적 정체감의 혼란을 가져오고 노년기의 사회 적응상의 곤란을 유발하게 한다.

Baltes(1990)는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남아있는 능력과 자원을 개선하고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선택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을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할 것인지를 의미하며 선택된 영역에서의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행동을 말한다. 보상은 생물학적·인지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상실이 일어날 때 선택한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잠재력이나 자원의 감소나 상실을 메우기 위해 보완 기제를 가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떤 학습이나 보조기구, 외부의 도움, 심리적 보상 기제 등으로 보상하는 전략을 말한다(권효숙, 2011; 박현식 외, 2014).

조광희(2010)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건강이나 경제상태에 도움이 되고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 참여자는 현재 사회 활동이 없으므로 참여자보다 자기 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참여 노인이 일의 의미를 자존감에 두는 경우 삶의 질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13, 이재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는 노인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2015, 박영미).

Atchley(1982)는 일을 비롯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아개념을 확인하고 개인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결국 높은 생활 만족도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절한 일을 갖고 만족스러운 삶

을 사는 것이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느끼기 위한 노년의 과제이다(김소향, 이신숙, 2009).

종합해 볼 때 노인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을 통해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노년기 취업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뚜렷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노인의 욕구 충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한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의 요구에 맞추어 부합해야 하며, 축적한 경험, 지식,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부족한 수행능력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 경험과 기능,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의 사업을 통해 사회적 발전 및 성공적인 노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표 10>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결과
조광희 (2010)	·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 · 높은 생활만족도를 가져 옴
이재현 (2013)	· 노인의 일의 의미를 자존감에 두는 경우 삶의 질 향상
박영미 (2015)	· 자아 존중감 향상 · 삶의 질 향상
김소향 · 이신숙 (2009)	· 존재 가치 인식 · 인간관계와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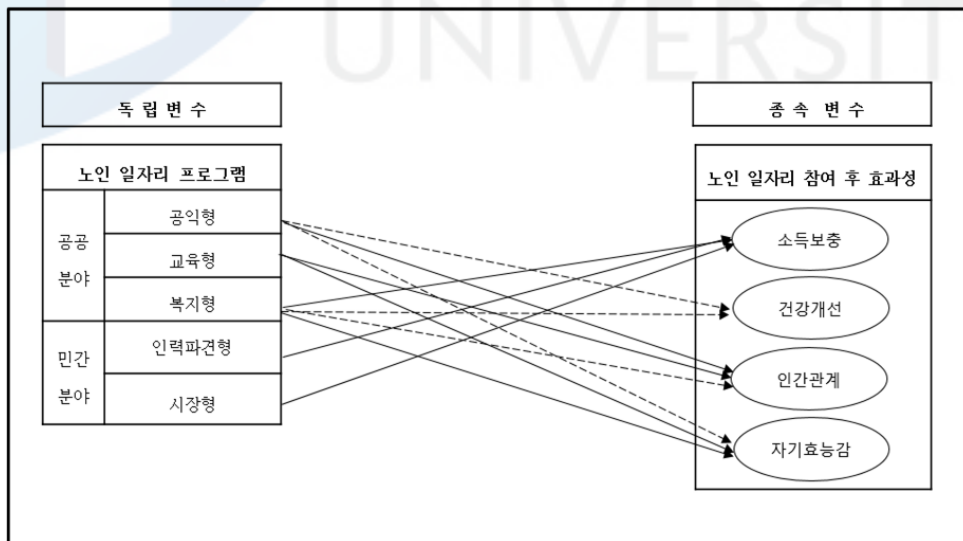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 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프로그램 유형을 파악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프로그램 유형별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후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연도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무개월, 거주 시군구 유형, 종교단체 활동 참여 여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전 인간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에 따라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 11> 노인 일자리 사업 효과성 연구 모형



2) 가설의 설정

(가) 노인 일자리 유형별 효과성

공익형 일자리의 대상은 노쇠하거나 전문기술이 없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층이다. 지자체의 경우 자신의 고유 업무영역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현안을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윤순영, 2013).

참여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조사되었고(한일숙, 2007) 타 유형의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익형 일자리의 적당한 업무활동량이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 것이다(고재욱, 2008).

공익형 일자리는 소정의 교육을 통해 숙지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일자리나 급여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금희, 2010).

교육형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교육경험이 더 많았다. 전직 교사 출신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높은 학위를 소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창한 언어 실력 등을 겸비하여 통역 일 등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경제활동 은퇴 전의 일자리와 교육형 사업의 일치도는 유사하였으며, 이전에 교육에 대한 경험자가 교육형 일자리에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장민지, 2011).

교육형 일자리 사업 참여시 급여 수준에 대한 낮은 만족을 보인다. 하지만 건강 도움 정도에 높은 만족을 보인다. 교육형 일자리 참여함으로써 소득보충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반면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형 사업에 특징과 목적에 맞게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전수경, 2009).

복지형 일자리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복지 향상과 아울러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 노인의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지형은 재가 노인 시설과 시설노인을 돌봄으로 사업에 노인인력을 대폭 활용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고재욱, 2008).

복지형에 참여하는 노인의 전반적 만족도에는 월 급여, 삶의 질, 동료 관계,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형 일자리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업무 내용도 단순하고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 만족을 느끼는 경우 업무 내용도 만족한다(허수정, 2009).

복지형의 경우에는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이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한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뿐 아니라 가족 관계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김은영, 2010).

인력과전형, 시장형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 이유보다는 사회 참여, 자기발전 등 내적 동기에 의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인간관계와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인 취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2009, 허수정)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효과성으로 사업효과를 측정 한 결과 인력과전형이 건강과 소득에 사업효과가 높게 나타났다(고재욱, 2008).

시장형 일자리는 노인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보충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만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12, 박양숙). 또한 근로시간이 많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급여 만족도 역시 높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2013, 서경석). 신창원(2008)은 시장형 노인 일자리가 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건강과 이웃 간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했다.

<표 12> 노인 일자리 유형에 대한 가설

가설1.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에 따라 효과성에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1.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중 공익형은 일자리 참여 후 소득보충과 건강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중 교육형은 건강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중 복지형은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중 인력파견형은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5.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중 시장형은 소득보충,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자 특성에 대한 효과성

이수희(2010)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일자리 사업 참여 후 건강상태를 알아본 결과, 대체로 좋아짐 51.02% 매우 좋아짐 21.43%, 나빠짐 3.06%순으로 나타나 참여 노인의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노동은 노인의 건강상태를 좋아지게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외로움의 변화에서 대체로 좋아짐 60.20%, 매우 좋아짐 23.47%, 차이가 없음 15.31%, 나빠짐 1.02%순으로 나타나 참여 노인의 감정(외로움)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노인의 규칙적인 경제활동은 노인의 건강개선과 인간관계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연구에서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성 노인보다 여성노인이 일자리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참여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서소연, 2006). 연령과 삶의 만족도와 관계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연령이 증가한다는 것은 배우자 상실의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이 악화되며, 사회적 참여가 감소 등 삶의 만족도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허준수, 2004; 김미옥, 2003; 박광희, 한혜경, 2002; 권중돈, 조주연, 2000).

교육수준은 교육경험이 없는 노인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노인에게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일자리 참여 효과는 저학력 수준의 참여 노인들에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 중 종교 유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참여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종교가 없는 노인들이 있는 노인들보다 참여효과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신옥, 2009).

<표 13> 참여 대상자 특성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가설

가설 2.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효과성에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사업의 참여 후 남성보다 여성이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보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종교 단체 활동 참여하는 사람보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효과성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복지, 분배 등과 관련된 많은 과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지역주의 성향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중앙정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한계이다. 그리고 지역 간에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복지 역시 불균형한 현상 등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지역별로 참여 효과를 보면 중·소도시 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권승숙, 2013).

또한 사회활동에서는 도시 노인이 농촌 노인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노인은 18%만이 전혀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지만 농촌에서는 그 비율이 33.3%에 이르고 있다(이봉근, 2002).

완주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모든 수요자의 욕구를 한정된 자원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자원과 수단이 투입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완주군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급여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물론 정부재정의 한계가 있다. 월 20만원은 지나치게 낮은 보수라 노인들이 소득보장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속적인 수익창출로 더 많은 농촌 노인들의 안정적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참여자의 자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김성진, 2015).

농촌 노인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소득을 제대로 갖추기가 사실상 힘들고, 공적소득 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등의 이유로 인하여 빈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촌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여러 개선방안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의 농촌 현실과 농촌 노인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표 14> 참여대상자 거주 지역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가설

가설 3. 거주 지역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후 효과성에 (소득보충, 건강 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거주 지역(시군구)에 따라 효과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거주 지역(시군구) 중 군이 소득보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제2절 연구 분석 방법

1) 구성과 특징

본 연구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 실태 자료를 이용하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 실태 조사의 목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실태에 대한 파악 및 정책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실태조사 대상자는 전국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60대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 참여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2016년까지 4차례 시행되었다.(2007년, 2010년, 2012년, 2013년 실시)

본 연구의 표본은 최근 3년간 조사한 데이터로 2010년 1,501명, 2012년 2,006명, 2013년 2,0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1년 조사 미실시)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표본측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사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문헌자료, 정부 각 부처의 통계자료, 각종 연구기관 발간 자료, 학술자료 등의 발표결과를 이용하거나, 참고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각 변수의 관계를 규명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변수 측정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고 표본 구성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다루었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ver 19.0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Duncan test를 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집단이 노인 일자리 참여 이후의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사업을 각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으로 놓고, 통제변수의 내용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 시·군·구, 종교단체 활동 참여 여부, 현재 상태의 만

족도(인간관계, 건강, 경제상태)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 인간관계, 소득보충, 건강개선,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가)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전보다 참여 후에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4가지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노인 일자리를 통해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 내용은 급여의 소득보충, 건강상태, 인간관계, 자기효능감 등에 대한 변화 정도로 알아보았다.

고재욱(2008)의 노인 고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 목적(노인의 건강증진, 사회 참여의 증진, 보충적 소득보장)에 연유하여, 노인들의 개인적인 측면의 노인 문제를 소득, 건강, 외로움, 역할상실을 정책효과의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명성혜(2008)는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 참여자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약간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후 효과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표 15> 종속변수

변수		측정
종속변수	급여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었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건강상태가 좋아졌다.	2 = 별로 그렇지 않다.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3 = 변화없다.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	4 = 조금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나) 독립변수

이문국(2009)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구의 탈빈곤 결정요인 연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집단을 비교해 보았다. 노인 일자리는 법적 취지로 소득 보충뿐 아니라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의 특성에 맞추어 적합한 일자리로 배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로는 노인 일자리 유형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과건형’, ‘시장형’ 5가지로 구성하였다.

<표 16> 독립변수

변수		측정
독립변수	공익형	참여=1, 비참여=0
	교육형	
	복지형	
	인력과건형	
	시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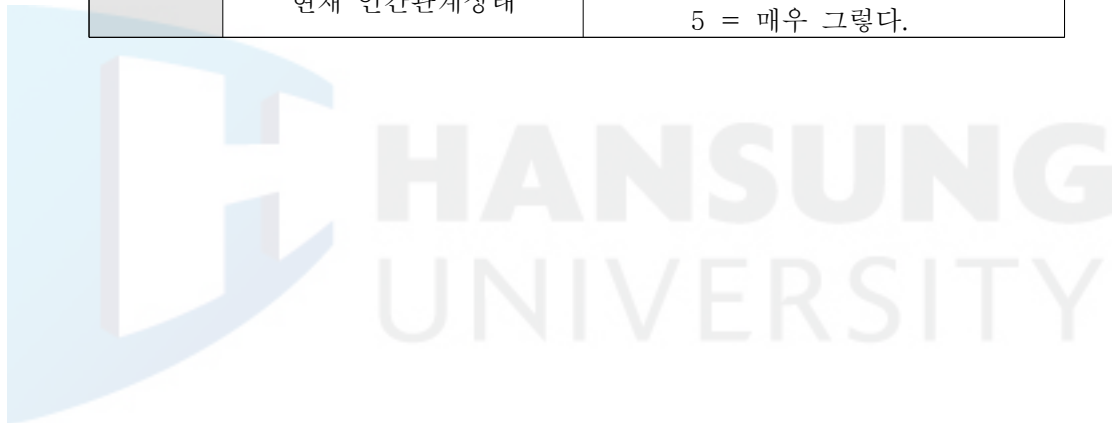
다) 통제변수

김주한(2015)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성별, 연령, 동거 유무, 건강상태, 소득유형, 경제수준, 월 용돈 등 7개 요인을 사용하였고, 윤형중(2008)은 노인 일자리 유형별 제효과에서는 성별, 혼인상태,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수입원, 월 생활비, 건강상태, 경제상태, 현생활의 어려움을 사용하였으며, 이지영(2013)은 정부 노인고용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과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 시·군·구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일자리 참여 특성은 종교단체활동 참여 여부, 노인 일자리 사업 근무 기간, 현재 경제상태, 건강상태, 인간관계상태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17> 통제변수

변수		측정
통제변수	성별	남자=1, 여자=2
	연령	60대=1, 70대=2, 80대=3
	거주지역	중소도시=1, 농어촌=2, 대도시=3
	교육수준	무학(글씨모름)=1, 대학원이상=8
	종교단체 참여 여부	참여=1, 미참여=0
	근무기간	1개월 = 1, 10개월 =10
	현재 경제상태	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별로 그렇지 않다. 3 = 변화 없다. 4 = 조금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현재 건강상태	
	현재 인간관계상태	



3) 분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 실태 자료 중 2010년, 2012년, 2013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SPSS ver 19.0으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 0.05$ 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셋째,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넷째, 사업유형,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른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하였다.

분산분석 후 차이가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인 Duncan test를 하였다.

다섯째, 사업유형이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1절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 표본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대한 실태 분석

조사 대상자의 사업유형,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종교단체 활동 참여 여부, 근무기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18>과 같다.

독립변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사업유형에서는 공익형이 42.6%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과견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63.6%, 남자가 36.4%로 남성보다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70대가 60.7%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30.6%, 80대가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연령은 60~70대 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서는 중소도시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 40.7%, 농어촌 18.3%의 순으로 나타나,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초졸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 16.8%, 무학(글자해독) 16.5%, 고졸 13.2%, 무학(글자모름) 6.2%, 대졸 6.0%, 전문대졸 2.0%, 대학원 이상 0.9%의 순으로 나타났고, 무학, 초졸, 중졸을 합치면 71.9%로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단체 활동 참여 여부에서는 미참여가 64.2%, 참여가 35.8%로 나타났고, 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종교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이 65%로 종교 단체 활동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무기간에서는 7개월이 28.0%로 가장 많았으며, 5개월 21.2%, 4개월 15.5%, 3개월 10.9%, 6개월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독립변수에 대한 실태조사

구 분		빈도	퍼센트
사업유형	공익형	2357	42.6
	교육형	837	15.1
	복지형	1090	19.7
	시장형	666	12.0
	인력과건형	577	10.4
성별	남자	2013	36.4
	여자	3514	63.6
연령	60대	1693	30.6
	70대	3356	60.7
	80대 이상	478	8.6
거주지역	중소도시	2266	41.0
	농어촌	1009	18.3
	대도시	2252	40.7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341	6.2
	무학(글자해독)	912	16.5
	초졸	2132	38.6
	중졸	926	16.8
	고졸	730	13.2
	전문대졸	110	2.0
	대졸	329	6.0
	대학원 이상	47	.9
종교단체 참여 여부	참여	1980	35.8
	미참여	3547	64.2
근무기간	1개월	54	1.0
	2개월	74	1.3
	3개월	602	10.9
	4개월	859	15.5
	5개월	1173	21.2
	6개월	598	10.8
	7개월	1550	28.0
	8개월	312	5.6
	9개월	96	1.7
	10개월	209	3.8
합계		5527	100.0

2)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측정변수인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는 <표19>와 같다.

전 가족관계는 3.77%, 전 건강상태는 3.47%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전 경제상태는 2.89%로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소득보충에서는 4.0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참여 후 건강개선이 3.66%, 참여 후 인간관계는 3.81%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참여 후 자기효능감은 3.97%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의 참여 후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노인들에게 일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일을 통해 삶에 생기를 불어 넣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적절한 활동은 노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Adelmann, 1994).

현대사회의 노인들은 퇴직의 제도화 및 은퇴 등으로 이른 시기에 노인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상실은 경제적 수입 감소의 원인이 된다. 또한 노화에 따른 건강악화와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되어 고독감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노인 문제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증진시키는 이득을 제공한다(심정영, 2006). 이처럼 노인 일자리는 노년기의 일을 통해 사회적 참여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삶의 활력을 갖도록 해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 수입을 보완하는 등 긍정적 생활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년기의 활동성 노화 및 생산적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김동배, 2004).

<표 19> 측정변수에 대한 분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전 가족관계	5527	3.77	.73
전 건강상태	5527	3.47	.83
전 경제상태	5527	2.89	.87
참여 후 소득보충	5527	4.03	.78
참여 후 건강개선	5527	3.66	.74
참여 후 인간관계	5527	3.81	.68
참여 후 자기효능감	4027	3.97	.65



HANSUNG
UNIVERSITY

3) 측정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20>와 같다.

공익형은 소득보충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교육형은 소득보충과는 부(-),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복지형은 소득보충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시장형은 소득보충, 자기효능감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력과견형은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은 소득보충과 부(-), 건강개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연령대는 소득보충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거주 지역별로는 시 지역은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군 지역은 소득보충, 인간관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육수준은 소득보충과 부(-)의 관계를 보이며,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참여 더미는 인간관계와 부(-), 자기효능감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근무개월은 소득보충, 인간관계, 자기효능감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전 가족관계는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 건강상태는 소득보충과 부(-),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 경제상태는 소득보충과 부(-),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표 20>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구 분	공 익 형	교 육 형	복 지 형	사 장 형	인력 파견 형	성별 다미	연령 대	사지 역	군지 역	교육 수준	참여 다미	근무 개월	전 가족 관계	전 건강 상태	전 경제 상태	소득 보충	건강 개선	인간 관계	자기 효능 감
공익형	1																		
교육형	-.36 4***	1																	
복지형	-.42 7***	-.20 9***	1																
사장형	-.31 9***	-.15 6***	-.18 3***	1															
인력파견형	-.29 4***	-.14 4***	-.16 9***	-.12 6***	1														
성별다미	.019 ***	.080 ***	-.18 5***	-.05 8***	.179 ***	1													
연령대	.269 ***	-.08 3***	-.01 0	-.02 8*	-.29 6***	.077 ***	1												
사지역	-.07 4***	.063 ***	-.02 3	.082 *	.053 ***	.001 ***	-.05 3***	1											
군지역	.125 ***	-.07 4***	.035 **	-.05 6***	-.10 2***	-.02 2	.143 ***	-.39 4***	1										
교육수준	-.26 9***	.404 ***	-.11 8***	-.04 9***	.167 ***	.362 ***	-.22 5***	.034 *	-.19 5***	1									
참여다미	-.05 7***	.049 ***	.056 ***	-.00 4	-.03 4*	-.15 5***	-.03 8***	.052 ***	-.05 7***	.067 ***	1								
근무개월	-.05 3***	.017 ***	-.01 2	.085 ***	-.02 1	.022 ***	-.02 9*	-.00 8	-.01 2	.032 *	-.06 1***	1							
전가족관계	-.11 4***	.139 ***	-.01 0	.000 ***	.034 *	.086 ***	-.08 7***	.013 ***	-.02 9*	.177 ***	.014 ***	-.04 8***	1						
전건강상태	-.14 5***	.140 ***	-.00 5	-.01 6	.094 ***	.133 ***	-.10 7***	.000 ***	-.11 6***	.253 ***	-.00 3	.029 *	.304 ***	1					
전경제상태	-.18 5***	.176 ***	-.02 4	.035 *	.088 ***	.071 ***	-.10 3***	.045 ***	-.05 5***	.248 ***	-.03 5***	.029 *	.327 ***	.413 ***	1				
소득보충	.104 ***	-.15 5***	.036 **	-.03 5***	.004 ***	-.08 5***	.067 ***	.022 ***	.067 ***	-.23 5***	-.02 0	-.09 3***	-.02 0	-.04 3***	-.15 2***	1			
건강개선	.005 ***	.032 ***	-.00 1	-.02 1	-.04 5***	.051 ***	.010 ***	.019 ***	-.01 9	.049 ***	-.01 5	-.00 3	.097 ***	.194 ***	.133 ***	.289 ***	1		
인간관계	-.02 3	.068 ***	.022 ***	-.00 6	-.06 4***	-.00 5	.008 ***	.004 ***	.027 *	.035 ***	-.03 0*	-.03 9***	.125 ***	.144 ***	.113 ***	.278 ***	.587 ***	1	
자기효능감	-.02 7	.084 ***	.011 ***	-.03 5*	-.03 3*	.006 ***	-.02 9	.004 ***	-.02 0	.066 ***	.036 *	-.14 9***	.175 ***	.159 ***	.074 ***	.390 ***	.509 ***	.616*	

* : $p < .05$, ** : $p < .01$, *** : $p < .001$

제2절 효과성 분석

1) 사업유형에 따른 효과성(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 분석

가) 사업 유형별 소득보충 분석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에 따른 소득보충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는 <표21>과 같다.

분석한 결과 사업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공익형이 가장 소득보충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교육형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결정하는 필수조건 중의 하나는 경제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전체의 경제 상황, 개인의 경제적 능력 등 모든 경제문제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성남, 2005).

공익형 일자리의 참여자를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재산 상황 및 주거형태를 파악하여 저소득 노인 위주로 우선 선발한다. 즉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이 대부분이라서 경제적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고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공익형 급여는 월 20만원 내외의 소득이지만, 참여 대상자의 특성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 기초연금 수급 현황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은 33%로 1인가구는 20만원 내외, 2인가구는 32만원 내외이다. 공적연금의 수혜를 받는다고 해도 생활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OECD가 배포한 '연금 개혁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이 12.6%인 것에 비하면 4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급격한 노령화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시에 노인 빈곤층도 늘어나고 있다. 노인의 빈곤층 증가는 연금의 수혜자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

를 통해 노인빈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수경(2009)은 교육형 일자리 사업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급여 수준에 대한 낮은 만족을 보이고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형 일자리의 참여는 소득보충에서만 부(-)의 영향을 띠고 건강개선과 자기효능감에서는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필자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교육형 일자리는 급여에 대한 소득보충에 대한 인식이 낮다. 이는 교육형 일자리가 소득보충에 대한 욕구가 아님을 증명해 줄 수 있다.

이문국(2009)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구의 탈빈곤 결정요인을 연구한 결과 참여자의 혼인상태, 가구 형태에서 탈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교육수준으로는 고학력·중산층이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탈빈곤에 기여할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총소득과 가구 총소득에서 모두 가장 높은 참여자 가구 집단으로 분석되어 별도의 근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고소득 집단으로 추정된다.

교육형 일자리는 공공분야로서 20만원내외에 동일한 급여가 제공된다. 위 분석을 살펴보면 확일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교육형의 참여 대상자의 특성과 소득을 고려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 21> 사업 유형별 소득보충 분석

구 분		M(SD)	t/F	p
사업유형	공익형a	4.13(.72)	40.601***	b<d<e<a
	교육형b	3.74(.85)		
	복지형c	4.09(.75)		
	시장형d	3.96(.76)		
	인력파견형e	4.04(.89)		

*** $p<.001$

나) 사업 유형별 건강개선 분석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별 건강개선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는 <표22>와 같다.

분석한 결과 사업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업 유형 중 교육형이 건강개선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인력파견형이 가장 낮았다.

교육형 3.75, 공익형 3.67, 복지형 3.66, 시장형 3.62, 인력파견형 3.56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분야(교육형, 공익형, 복지형)와 민간분야(시장형, 인력파견형)로 나뉘어 공공분야는 건강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고 민간분야는 건강개선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분야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환경, 질서, 시설관리 등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이다. 국가재정의 노인 일자리 예산에서 참여하는 노인에게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한다. 낮은 난이도의 단순 노무직으로 하루 3~4시간 내외, 주 2~3일, 월 40시간 내외로 근무하며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참여 노인들은 노동의 강도와 근무 시간이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다고 판단하여 건강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인 일자리의 사업유형 및 근무시간은 개선되고 있지만 2004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책정된 급여는 현재까지 동일하다.

민간분야는 인력파견형과 시장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인력파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이다. 시장형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통해 노인들의 자립을 얻는 일자리이다. 다시 말하면 민간분야는 기업이나 노인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예산에서 부대경비를 지원하며, 공공분야에 비해 많은 시간의 근무를 해야 한다. 대부분 평균 8시간 이상의 근무로 시장형은 식품 제조 판매, 지하철 택배, 세차원, 지역영농사업 등의 일자리이며,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는 경비원, 미화원, 주유원, 가사도우미 같은 일자리로 노인의 체력으로는 버티기 힘든 높은 강도의 업무이다. 민간분야의 일자리는 노화로 인해 신체적 능력의 저하(자연적 노쇠현상)

와 질병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 된 노인의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건강개선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분야의 일자리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도록 노동의 강도와 근무시간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 의료패널(2015)에서 노인 일자리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이 개인 의료비를 더 적게 지출한다고 했다. 지역 의료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기타보험에 가입된 노인, 주 1회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적었다. 의료비 감소는 노인의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건강개선으로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 제공해야 하며,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로 노인의 일과 건강개선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22> 사업 유형별 건강개선 분석

구 분		M(SD)	t/F	p
사업유형	공익형a	3.67(.73)	6.272***	e<a,c<b
	교육형b	3.75(.72)		
	복지형c	3.66(.74)		
	시장형d	3.62(.77)		
	인력파견형e	3.56(.77)		

*** $p<.001$

다) 사업 유형별 인간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별 인간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는 <표23>과 같다.

분석한 결과 사업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업 유형 중 교육형이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인력파견형이 가장 낮았다.

교육형 일자리 참여자들은 높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특정 분야의 지식층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했을 때에는 특정 지위와 역할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다 노화와 은퇴에 따른 사회활동 중단이 인간관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교육형 참여자들은 이미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친구나 이웃, 지역서비스센터나 민간 조직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효과는 인간관계 증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노인은 적절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삶의 질,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는데 은퇴와 같은 인위적인 사회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때는 고립감, 무력감으로 인하여 생활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쇠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잔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인의 활동을 증가시켜주는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다(사혜진, 2012).

윤형중(2008)의 일자리 참여에 따른 긍정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교육형 일자리 참여가 인간관계에 대한 효과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형 일자리는 외로움, 소외감이 높게 나타났고 무료한 시간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이해한다.

인력파견형의 경우 기업 및 노인 활용 업체의 계약에 의해 근무하며 인건비를 지급받는 형태로써 미화원, 경비원, 주유원 등의 일자리가 있다. 오랜 근무 시간과 강도 높은 노동의 일자리로 일용직, 임시직 및 계약직으로 대우가 좋지 않다. 이는 직장 내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의 근무로 인간관계에도 소홀해 진다고 볼 수 있다. 인력파견형 일자리는 노인들의 자립으로 시장 개척이 가능한 일자리이다.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세제 혜택이나 임금 보조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가 유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는 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요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안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회 분위기 및 제반 제도적 지원의 필요하다.

<표 23> 사업 유형별 인간관계 분석

구 분		M(SD)	t/F	p
사업유형	공익형a	3.80(.67)	11.593***	e<a,c,d<b
	교육형b	3.92(.66)		
	복지형c	3.84(.70)		
	시장형d	3.80(.70)		
	인력파견형e	3.69(.70)		

*** $p<.001$



라) 사업 유형별 자기효능감 분석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별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는 <표24>와 같다.

분석한 결과 사업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업 유형 중 교육형이 가장 높았고,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이 자기효능감 인식이 가장 낮았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사회적인 역할수행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바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혹은 기대하는 역할의 내용이 불확실해지면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 혼란스러워하거나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기존 직장의 은퇴와 노인계층으로의 편입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위치 및 지위, 경제적 능력 등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역할을 감소시킨다. 사회적 역할이 감소한다는 것은 역할 기대의 감소를 말하며 이는 자아정체성의 혼돈, 자아상실감, 무력감을 일으키고 나아가 노년의 소외와 고독으로 이어진다(고수현·윤선오, 2006).

노인은 근로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자기 만족감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역할 부여에 따른 대인관계와 자아정체감, 통합감 형성에 정(+)의 관계가 있다(박양숙, 2012). 필자의 분석결과와 동일하다. 즉 교육형은 건강개선과 인간관계의 증진에 따라 자기효능감 또한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다.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은 민간분야의 일자리로 구분된다. 김나리(2016)는 인력파견형과 삶의 질 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효과로 검증하였을 때, 인력파견형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을 밝혀졌다. 이는 필자의 분석결과와 동일하다. 전술하였듯이 인력파견형은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노동강도 등과 관련하여 건강개선과 인간관계에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도 낮게 나타난 것이라 본다.

인력파견형 사업은 인건비와 산재보험료, 부대경비를 지출하게 되므로 사업집행에 어려운 점은 없다. 그러나 시장형 일자리 사업은 일정 기간의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를 보충해 주고 추가 사업 소득으로 운영해야 하며 사업공간

에 따른 임대료까지 지급하는 실정에서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 또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기업 경쟁력을 위해 마케팅뿐 아니라,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난이도의 일자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 시장형의 난이도의 일자리는 자기 효능감은 낮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시장형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박람회 개최나 홍보, 광고 등 지자체에서 보호된 시장 체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민간분야의 일자리는 소득 창출 및 노인 집합 직종이 개발되고 공공 및 민간 기관과 기업이 노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노동시장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일자리로 보고 개발하기에 적합하다고 본다.

<표 24> 사업 유형별 자기효능감 분석

구 분		M(SD)	t/F	p
사업유형	공익형a	3.95(.64)	8.624***	d,e<a,c<b
	교육형b	4.10(.62)		
	복지형c	3.99(.66)		
	시장형d	3.91(.66)		
	인력파견형e	3.91(.67)		

*** $p<.001$

2) 인구통계적 요인별 효과성(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 분석

가) 인구통계적 요인별 소득보충에 대한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적 요인별 소득보충에 대해서 차이 분석을 한 결과는 <표25>와 같다.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소득보충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노인은 남성보다 인적자원 수준이 낮고 생애주기에 걸쳐 노동시장 참여경험이 짧다. 또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가부장적 특성으로 볼 때 가정을 돌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활동망이 적다. 남성보다 여성이 근로 및 사업소득, 자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에서 낮은 수준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빈곤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최희경(2005)은 여성의 빈곤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여성의 노년기 빈곤은 여성의 노년기 이전에 속해 있던 원 가족과 결혼으로 형성한 가족의 빈곤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만성적 빈곤의 성격을 가지며, 노년기 이후에 여성이 경험하는 사별이나 발병 등 특정한 생애사건들이 만성적 빈곤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구조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주변적 위치, 노년기까지 지속되는 가족 내 성 역할 부담으로 인한 소득기회 상실, 가정 내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권 부족 등 불평등한 지위들이 결합하여 여성의 노년기 빈곤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여성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효과가 더 크게 인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균 수명 역시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장수하는 오늘날에 노인 일자리 정책은 여성들에게 분명하게 사업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60대보다 70대와 80대에서 소득보충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 노동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연령과 생산성 사이에는 거꾸로 된 u자형 관계가 있다. 노인은 젊은 연령층

에 비해 생산 활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게 되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이혜신, 2006). 이는 노인빈곤이 일반적인 빈곤요인들과 거의 대부분 유사하지만, 고령화라는 현실이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나이를 먹는 현상 자체가 또 하나의 빈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일에 대한 소득보충의 인식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학원 이상에서 가장 낮았으며, 무학에서 소득보충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학과 초졸 이하의 두 학력수준을 합친 결과가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으로 전체적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이하의 노인에게서 일자리 참여 효과 중 소득보충이 높아, 일자리 참여 효과는 저학력 수준의 참여 노인들에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 수준의 경우 소득에 대한 효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학력일수록 빈곤한 경제상태이며,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통해 소득보충으로 노년의 삶에 보탬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거주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도시에서 인식이 가장 낮았고, 농어촌에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의 노인은 교육, 문화 여가 등 사회 참여에 폭이 넓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는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적은 것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 일 자리를 통해 생산적 활동을 하며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소득보충이 되어 이에 따른 효과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근무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2개월과 9개월에서 가장 낮았으며, 5개월에서 소득보충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기간이 늘어날수록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충에 대한 인식은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에게 영향을 더 미쳤으며,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의 정도가 낮은 집단이 소득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 참여 여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은 사업효과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수준별 알맞은 직종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표 25> 인구통계적 요인별 소득보충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M(SD)	t/F	Duncan test
성별	남자	3.94(.82)	-6.347***	
	여자	4.08(.76)		
연령	60대a	3.95(.82)	13.547***	a<b,c
	70대b	4.06(.77)		
	80대 이상c	4.10(.76)		
거주지역	중소도시a	4.05(.78)	20.197***	c<a<b
	농어촌b	4.14(.73)		
	대도시c	3.96(.8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a	4.18(.71)	50.574***	h<g<e,f<c,d<a,b
	무학(글자해독)b	4.21(.73)		
	초졸c	4.12(.72)		
	중졸d	4.01(.76)		
	고졸e	3.85(.81)		
	전문대졸f	3.75(.84)		
	대졸g	3.52(.91)		
	대학원 이상h	3.19(1.15)		
종교단체 참여 여부	참여	4.01(.79)	-1.515	
	미참여	4.04(.78)		
근무기간	1개월a	4.02(.84)	15.881***	b,i<f<e
	2개월b	3.70(.86)		
	3개월c	4.08(.81)		
	4개월d	4.09(.77)		
	5개월e	4.19(.73)		
	6개월f	4.01(.71)		
	7개월g	3.95(.78)		
	8개월h	4.03(.78)		
	9개월i	3.57(1.00)		
	10개월j	3.80(.85)		

*** $p<.001$

나) 인구 통계적 요인별 건강개선에 대한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 인구 통계적 요인별 건강개선에 대해서 차이 분석을 한 결과는 <표26>과 같다.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개선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강력한 가부장권을 행사하면서 권위와 존경의 상징으로 군림해 왔으며, 산업사회 이후 직장에서의 은퇴는 사회적인 위치상실과 경제적 능력의 약화로 사회적 역할 역시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재취업의 기회로 건강하고 활력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원 졸이 건강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일하고픈 의욕을 가진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는 고학력을 지닌 전문 직장에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직장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이 더욱더 많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의 퇴직 전 인적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고학력 전문 직업 경력을 보유한 고령자들의 사회 참여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근무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2개월에서 가장 낮았고, 4개월과 5개월에서 건강개선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기간이 늘어날수록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건강개선에 대한 인식은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에게 영향을 더 미쳤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거주지역, 종교단체 참여 여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또한 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표 26> 인구 통계적 요인별 건강개선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M(SD)	t/F	Duncan test
성별	남자	3.71(.73)	3.826***	
	여자	3.63(.74)		
연령	60대a	3.65(.73)	.840	
	70대b	3.67(.74)		
	80대 이상c	3.65(.78)		
거주지역	중소도시a	3.68(.77)	1.469	
	농어촌b	3.63(.76)		
	대도시c	3.66(.7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a	3.56(.76)	3.116**	-
	무학(글자해독)b	3.60(.78)		
	초졸c	3.66(.74)		
	중졸d	3.71(.72)		
	고졸e	3.72(.72)		
	전문대졸f	3.68(.79)		
	대졸g	3.69(.67)		
	대학원 이상h	3.66(.73)		
종교단체 참여 여부	참여	3.65(.75)	-1.132	
	미참여	3.67(.74)		
근무기간	1개월a	3.48(.86)	4.969***	b<a<d,e
	2개월b	3.27(.71)		
	3개월c	3.61(.81)		
	4개월d	3.73(.78)		
	5개월e	3.71(.75)		
	6개월f	3.66(.69)		
	7개월g	3.66(.69)		
	8개월h	3.61(.75)		
	9개월i	3.52(.70)		
	10개월j	3.62(.71)		

** $p<.01$, *** $p<.001$

다) 인구 통계적 요인별 인간관계에 대한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 인구 통계적 요인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차이 분석을 한 결과는 <표27>과 같다.

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무학에서 가장 낮았으며, 초졸, 중졸, 고졸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관계 형성과 경험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단체활동 참여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참여보다 미참여하는 집단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단체 활동 참여 유무에 대해서는 종교가 있는 노인들보다 없는 노인들에게서 노인 일자리 참여 효과가 높았다. 노년기에 있어 종교 활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종교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 및 소통의 기회가 종교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보다 사회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근무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2개월에서 가장 낮았으며, 5개월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기간이 늘어날수록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은 학력이 높을수록 영향을 미치며, 종교 단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집단이 인간관계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표 27> 인구 통계적 요인별 인간관계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M(SD)	t/F	Duncan test
성별	남자	3.81(.69)	-.355	
	여자	3.82(.68)		
연령	60대a	3.80(.67)	.569	
	70대b	3.82(.69)		
	80대 이상c	3.81(.70)		
거주지역	중소도시a	3.82(.71)	2.792	
	농어촌b	3.85(.71)		
	대도시c	3.79(.64)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a	3.67(.70)	4.405***	a<c,d,e
	무학(글자해독)b	3.77(.70)		
	초졸c	3.83(.68)		
	중졸d	3.88(.68)		
	고졸e	3.83(.65)		
	전문대졸f	3.77(.75)		
	대졸g	3.80(.64)		
	대학원 이상h	3.79(.69)		
종교단체 참여 여부	참여	3.79(.68)	-2.247*	
	미참여	3.83(.69)		
근무기간	1개월a	3.74(.78)	7.563***	b<e
	2개월b	3.55(.64)		
	3개월c	3.82(.71)		
	4개월d	3.84(.73)		
	5개월e	3.92(.72)		
	6개월f	3.72(.66)		
	7개월g	3.80(.63)		
	8개월h	3.76(.66)		
	9개월i	3.61(.67)		
	10개월j	3.75(.63)		

* $p<.05$, *** $p<.001$

라) 인구 통계적 요인별 자기효능감에 대한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 인구 통계적 요인별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차이 분석한 결과는 <표28>과 같다.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 효능감의 인식이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상실 가능성과 핵가족화와 같은 가족관계의 분열, 직장으로부터의 은퇴와 사회적 지위감소,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자신을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고 만족하는 자기효능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떨어지는 반비례적 관계가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80~84세 노인은 17%, 85세 이상 노인은 7.3%에 불과하였다(정경희, 2011).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소외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의 능력을 인정받기 쉬운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의 노인은 기능적 연령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은 노화로 인한 다른 능력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영역의 기능의 정도에 따라 노인을 규정해야 한다.

거주지역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자기효능감에 인식이 높고, 농어촌이 자기효능감이 낮았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도시를 모델로 개발된 측면이 있어 농어촌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농어촌의 특성상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간관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의 경우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사일의 수익이 더 높으므로 굳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힘든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렇듯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농어촌에 참여하는 노인은 자기효능감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무학(글자모름)에서 가

장 낮았고, 중졸, 고졸, 대졸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란 것은 본인이 목표한 일정 과제를 끝마친 후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만족하는 것으로써 학업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얻게 되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유지가 더 많아지므로 자기평가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종교단체의 참여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종교 단체 활동에 참여할수록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신혜진(2005)은 종교는 사회와 개인을 통합시켜 주는 중간 매개체로서 심리적 안정과 소외감 감소, 자기 기대와 현실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갈등을 조절하게 된다. 또한 본인의 존재 의미와 삶의 의미를 제공하며, 동시에 심리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백준흠, 2000). 이는 종교 단체의 참여만으로도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근무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2개월, 9개월, 10개월에서 가장 낮았고, 5개월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지역이 대도시와 중소 지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학력이 높을수록 영향을 미치며, 종교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이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인구 통계적 요인별 자기효능감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M(SD)	t/F	Duncan test
성별	남자	3.98(.65)	.407	
	여자	3.97(.65)		
연령	60대a	4.00(.65)	1.652	
	70대b	3.97(.65)		
	80대 이상c	3.93(.67)		
거주지역	중소도시a	3.98(.67)	.863	
	농어촌b	3.95(.65)		
	대도시c	3.98(.63)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a	3.82(.72)	4.068***	a<e,d,g
	무학(글자해독)b	3.93(.69)		
	초졸c	3.97(.63)		
	중졸d	4.01(.63)		
	고졸e	4.04(.62)		
	전문대졸f	3.90(.81)		
	대졸g	4.06(.59)		
	대학원 이상h	3.97(.77)		
종교단체 참여 여부	참여	4.01(.63)	2.281*	
	미참여	3.96(.65)		
근무기간	1개월a	3.91(.85)	26.244***	b,i,j<e
	2개월b	3.75(.64)		
	3개월c	4.00(.60)		
	4개월d	4.09(.66)		
	5개월e	4.18(.68)		
	6개월f	3.84(.61)		
	7개월g	3.83(.58)		
	8개월h	3.85(.65)		
	9개월i	3.73(.60)		
	10개월j	3.76(.63)		

** $p<.01$, *** $p<.001$

3) 사업유형별 참여 후 효과성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분석

가) 사업유형이 참여 후 소득보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에서 사업유형이 참여 후 소득보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29>와 같다.

사업유형이 참여 후 소득보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를 투입한 단계 1에서는 연도 2010년, 연도 2012년, 시지역, 군지역, 교육수준, 전 가족관계, 전 건강상태, 전 경제상태가 소득보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업유형이 투입된 단계 2에서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이 소득보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력파견형에서 소득보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길순(2009)은 노인의 일상생활 고충 중 경제적 어려움이 1위로 나타났으며 건강 및 보건의료 문제가 2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유로운 활동과 취미보다는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해소가 우선이라고 본다.

인력파견형은 기업과의 계약 체결로 노인 고용 업체에서 일하며 인건비를 지급받는 형태이다. 평균 근로 시간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자리이다. 공공분야 일자리는 월평균 20만원 내외이지만, 민간분야의 인력파견형은 월 평균 100만원 내외의 소득으로 경제적 보탬에 효과를 주는 것이다.

교육형이 소득보충에 가장 낮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자리 참여자들은 전문 지식층이다. 또한 소득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집단이다. 교육형 집단은 소득보충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 시 가지고 있던 전문적인 지식을 지속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즉 참여 노인의 요구와 특성에 맞추어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형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 기업체와 경쟁해서 충분한 수익을 산출하기 어렵다. 즉

경쟁 업체 존재로 인해 판로 개척 등 수익 확보에 애로가 크다. 공동 작업장 형식의 사업은 노동 강도가 세지 않으나 추가적 수익 확충이 어려워 낮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조태현, 2009). 최저임금을 맞추기 어렵고, 참여 노인의 입장에서 일자리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다른 일자리 기회로 전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남기철, 2011). 또한 참여 노인들은 희망근로사업 등 다른 유사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열악한 임금수준 때문에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사업으로 물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표 29> 사업유형이 참여 후 소득보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단계1		단계2	
	베타	t	베타	t
(상수)		53.417		50.639
연도2010	-.090	-5.350***	-.097	-5.714***
연도2012	-.182	-9.153***	-.190	-9.534***
성별더미	-.016	-1.085	-.031	-2.123*
연령대	.008	.590	.018	1.232
시지역	.053	3.792***	.056	4.011***
군지역	.050	3.460**	.050	3.496***
교육수준	-.207	-13.683***	-.181	-11.152***
참여더미	-.025	-1.863	-.023	-1.719
근무개월	.029	1.609	.040	2.261*
전 가족관계	.034	2.421*	.039	2.774**
전 건강상태	.059	4.052***	.058	3.972***
전 경제상태	-.135	-9.150***	-.129	-8.755***
공익형			-.051	-2.119*
교육형			-.110	-5.704***
복지형			-.053	-2.556*
시장형			-.086	-4.689***
R Square	.093		.101	
△R Square			.008	
F	47.377***		38.824***	

* $p < .05$, ** $p < .01$, *** $p < .001$

나) 사업유형이 참여 후 건강개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에서 사업유형이 참여 후 건강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30>과 같다.

사업유형이 참여 후 건강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를 투입한 단계 1에서는 연도 2010년, 연도 2012년, 연령대, 근무개월, 전 건강상태, 전 경제상태가 건강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업유형이 투입된 단계 2에서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이 건강개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과전형에서 건강개선에 대해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에서는 건강개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욱(2008)은 공익형 일자리는 적당한 업무활동량이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필자의 분석과 동일하다.

공익형은 말 그대로 공익적 이익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 중 하나로 공공기관에서 주로 근무하게 되며, 높지 않은 노동강도와 일 3~4시간, 월 40시간 내외의 근무시간은 노인의 건강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인력과전형의 일자리 형태는 일회성 가정도우미, 지역 내 농산물 가공업체의 지역 일손 도우미, 미화원, 경비원, 주유원, 식당 보조원 등 강도 높은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이다. 또한 근무시간은 수요처와의 계약에 의해서 하루에 평균 8시간 정도를 근무하게 되거나 야간 근무를 진행하게 된다. 젊은이들에게도 힘든 노동의 강도가 노인에게 더 힘든 일자리임이 분명하다.

남기철(2010)은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근로시간도 많아 형평성 결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은 일자리 참여를 기피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했다. 높은 노동의 강도는 노화와 만성 질병을 가진 노인에게는 건강에 무리가 되는 일자리로 건강개선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을 거라 판단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도탈락 경험은 87%에 해당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중도탈락의 이유는 건강문제가 제일 높으며, 급여가 보탬이 되지 않거나 책임감 부족, 일에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한 일자리 개발 및 선택이 필요하며, 동시에 노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도움과 일에 대한 책임과 만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 본다. 이는 중도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요처와 계약에 의해 진행됨으로 기업에 따른 문제,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고 최저임금,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를 개별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표 30> 사업유형이 참여 후 건강개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단계1		단계2	
	베타	t	베타	t
(상수)		34.480		31.384
연도2010	-.063	-3.646***	-.071	-4.075***
연도2012	-.137	-6.701***	-.141	-6.904***
성별더미	.022	1.469	.033	2.196*
연령대	.030	2.191*	.006	.383
시지역	.021	1.435	.022	1.558
군지역	.009	.580	.003	.224
교육수준	-.013	-.839	-.014	-.851
참여더미	-.015	-1.064	-.015	-1.072
근무개월	.074	4.100***	.078	4.290***
전 가족관계	.025	1.771	.023	1.593
전 건강상태	.161	10.772***	.162	10.847***
전 경제상태	.060	3.995***	.065	4.293***
공익형			.125	5.052***
교육형			.087	4.406***
복지형			.087	4.088***
시장형			.041	2.197*
R Square	.052		.057	
△R Square			.005	
F	25.071***		20.904***	

* $p < .05$, ** $p < .01$, *** $p < .001$

다) 사업유형이 참여 후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에서 사업유형이 참여 후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31>과 같다.

사업유형이 참여 후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를 투입한 단계 1에서는 연도 2010년, 연도 2012년, 성별더미, 군지역), 근무개월, 전 가족관계, 전 건강상태, 전 경제상태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업유형이 투입된 단계 2에서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이 인간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과건형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형, 복지형, 공익형, 시장형에서는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형은 사회에서 은퇴 후 역할상실과 더불어 사회적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노인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지위와 역할로 전이하여 종전과 유사한 새로운 역할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노인 일자리로 1·3세대 강사 파견 사업은 노인과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세대 간 교류하게 되므로 세대통합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사회적인 인간관계뿐 아니라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서도 노인이 부양해야 할 식구가 아닌 친근한 존재로 인식되어 가족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복지형은 서비스 수요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사회·심리적 약자의 위치에서 약자를 돕는 위치로 변화한다. 일자리 참여 대상자들은 일자리의 참여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안목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여자 본인보다 더 어려운 대상자를 돕는 일은 보람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노인은 외롭고, 고독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지형 일자리는 의존적인 노인의 인식에서 벗어나 신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의 개념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어 인간관계 개선에 효과성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인력파견형 일자리는 민간분야의 일자리로 대상 노인의 욕구와 사업의 불일치, 일자리의 질적인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대부분이 임시직,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에 해당하여 일에 대한 노동의 강도는 높고, 채우는 좋지 않다. 이는 수요처와의 인간관계가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루 평균 8시간 근무로 개인적 인간관계를 유지하기에도 어려울 것이다.



<표 31> 사업유형이 참여 후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단계1		단계2	
	베타	t	베타	t
(상수)		42.133		38.797
연도2010	-.162	-9.404***	-.167	-9.630***
연도2012	-.148	-7.270***	-.150	-7.330***
성별더미	-.032	-2.177*	-.014	-.934
연령대	.016	1.130	-.008	-.540
시지역	.023	1.581	.023	1.620
군지역	.054	3.685***	.049	3.345**
교육수준	.012	.744	.001	.086
참여더미	-.021	-1.521	-.023	-1.633
근무개월	.058	3.205**	.058	3.173**
전가족관계	.067	4.717***	.063	4.436***
전건강상태	.111	7.404***	.111	7.442***
전경제상태	.036	2.375*	.038	2.501*
공익형			.120	4.853***
교육형			.113	5.703***
복지형			.109	5.079***
시장형			.062	3.262**
R Square	.052		.059	
△R Square			.007	
F	25.360***		21.509***	

* $p < .05$, ** $p < .01$, *** $p < .001$

라) 사업유형이 참여 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에서 사업유형이 참여 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32>와 같다.

사업유형이 참여 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제변수를 투입한 단계 1에서는 연도 2012년, 근무개월, 전 가족관계, 전 건강상태, 전 경제상태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업유형이 투입된 단계 2에서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인식적인 면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교육형, 복지형, 공익형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력과 견형의 경우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났다.

교육형 사업이란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교육형 사업 참여자들에게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형 사업의 경우 주로 강사 파견 또는 문화재 해설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가지고 활동한 경험이 많은 노인들, 성공한 경험이 있는 노인들, 사회적 위치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경제적 활동이 높았던 노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형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과 사회활동을 통하여 인정받고 사회적 자본형성에 기여함으로 스스로 목표를 이룬 바 있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 효능감 역시 가장 높은 결과값이 나타났다. 반면 민간 분야 사업 중 시장형 사업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식품 제조 및 판매사업, 택배사업, 지역영농사업 등이 주된 일자리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들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과 능력은 뒤로 한 채 단순하게 반복되는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적다. 또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고객과 수요처의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과업은 근로 의욕저하 및 참여기피를 조장한다.

<표 32> 사업유형이 참여 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단계1		단계2	
	베타	t	베타	t
(상수)		40.797		38.618
연도2012	-.305	-13.576***	-.312	-13.797***
성별더미	-.024	-1.437	-.011	-.661
연령대	-.004	-.236	-.022	-1.288
시지역	.004	.214	.003	.194
군지역	.009	.533	.005	.281
교육수준	.032	1.848	.015	.814
참여더미	-.003	-.167	-.004	-.258
근무개월	.083	3.688***	.089	3.933***
전가족관계	.114	6.912***	.111	6.687***
전건강상태	.117	6.724***	.117	6.703***
전경제상태	-.024	-1.402	-.024	-1.367
공익형			.077	2.755**
교육형			.097	4.294***
복지형			.069	2.840**
시장형			.011	.524
R Square	.105		.111	
△R Square			.006	
F	42.834***		33.347***	

* $p < .05$, ** $p < .01$, *** $p < .001$

제5장 연구결과 및 제언

이 연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자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중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독립변수와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른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효과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에게 더욱 나은 삶을 제공한다. 특히 사회의 구성원의 일환으로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빈곤, 소득보충을 통해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키고 자 한다.

본 연구는 2010년, 2012년, 2013년 전국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자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을 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려 한다. 프로그램 집단을 5개의 사업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들의 특성(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종교단체 활동 여부, 근무개월, 참여 전 건강상태, 전 경제상태, 전 인간관계)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한 후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변수 측정에 필요한 정확한 목적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 문항에 대한 타당도 분석으로 요인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및 제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에 따른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 대한 빈도 분석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모든 유형이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성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사업 유형별 소득보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로 공익형이 가장 높았으며, 복지형, 시장형, 교육형, 인력파견형도 소득보충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건강개선에서는 교육형이 가장 높았으며, 복지형, 시장형, 공익형, 인력파견형도 건강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인간관계에 관해서는 교육형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복지형, 시장형, 공익형, 인력파견형도 인간관계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교육형에서 가장 높은 결과값이 나타났으며,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에서 가장 낮은 결과값을 나타냈으며 복지형과 공익형에도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요인별 소득보충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고, 연령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거주지역이 농어촌일 때 소득보충에 대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개선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건강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종교가 있는 노인들보다 없는 노인들에게서 노인 일자리 참여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단체 활동에 참여 하지 않는 노인에게 효과가 더 있다고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자기 효능감의 인식이 높았고 학력수준은 무학(글자모름)에서 가장 낮았고, 중졸, 고졸, 대졸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구 통계학적 요인별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서 근무기간이 5개월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높을수록 효과도 높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즉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기간이 5개월 정도 유지해야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이 참여 후 소득보충,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은 소득보충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건강개선, 인간관계, 자기효능감에는 정(+)의 영향을 주었다. 시장형은 소득보충과 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건강개선, 인간관계에는 영향을 주었다. 반면 인력파견형은 소득보충에 정(+)의 효과를 주었으나 건강개선, 인간관계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에게 어떠한 효과성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었으며, 노인의 욕구에 맞추어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정부 재정 절감 및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본다.

제2절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유형별) 제언

연구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후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공공분야의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은 소득보충에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공공분야의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으로 매달 인건비 20만원과 부대비용이 지급되나, 노인들의 생계와 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노인 일자리의 인건비는 현재까지 동일하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출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지출로 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급여가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간분야의 일자리인 시장형은 소득보충과 건강개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인력파견형은 건강개선, 인간관계에 부(-)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인력파견형은 소득보충에만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민간분야의 일자리는 공공분야보다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민간의 기업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및 세금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사업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일자리로 창출되어야 한다.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기초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별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형 사업

공익형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의 취약한 노동력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이 단순하고 예산에 의존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선호한다. 즉 일자리 수만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참여자의 욕구에 기반을 둔 사업이 되기보다는 편의성에 치중하여 일의 유형과 내용에 욕구를 역으로 적응시키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양적 팽창’, ‘임금 살포식’이란 비

판을 받고 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정부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이 이어지고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일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거나 직업 능력이 축적되어 다른 일자리로 연결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일자리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일자리에 그치지 말고, 참여기간과 난이도, 임금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교육형 사업

교육형 사업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일자리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발휘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즉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 노인의 전문 능력이 요구된다. 참여 프로그램의 전문지식과 지식 전달능력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비교적 학력이 높은 노인들의 참여율이 높다.

앞서 살펴본 분석결과와 같이 교육형 사업은 인간관계와 건강개선, 자기효능감에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소득보충에 대해서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공공분야의 특성에서 일하지만, 공공분야에는 맞지 않는다. 민간분야 일자리로 확대하여 지속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임금보조금이 중단하더라도 독립적인 사업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정비하여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사회적 일자리 협약이 잘 맺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개념의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밀착한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과제 해결,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영리추구 목적이 아닌, 그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다(조태현, 2009; 함유근, 2010).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영역에서 자생가능하고 지속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노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소재의 학교, 기업과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복지형

복지형 사업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서 돌봄이나 상담 등 기술을 습득한 노인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 혹은 돌봄서비스 등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수요자의 즉각적인 평가로 일의 효과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자원봉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4) 인력파견형

인력파견형 사업은 교육 수료 후 지역사회 수요처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일자리로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하며, 해당 수요처에 파견되어 근무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일자리이다. 비교적 준고령 노인들의 참여가 쉬우며, 지역사회와 기업체 연계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력파견형 사업은 지역 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를 개발하여 채용 협의를 거친 후 노동인력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하여 인력풀(pool)을 구축하고 파견하고 있다.

파견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관리를 통해 공신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지원과 보호된 시장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은 노인들을 고용하는 업체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나 임금 보조 등의 혜택을 주어 인력파견형 사업에 지자체의 예산 배정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연계를 통해 인력파견형 일자리를 계속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5)시장형

시장형 사업은 소규모 창업으로 보충적 소득을 얻는 일자리로서 참여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며, 노인들이 공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시장형 일자리는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 공공형 사업과는 달리 시장형 사업은 성과 위주의 체계에서 벗어나 경쟁력과 전문성의 갖추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형 사업단은 공공분야의 일자리와는 달리 판매 전략, 매출관리와 같은 마케팅 기술과 다양한 정보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복지관 수준에서나 사업단 수준에서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의 지원은 거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연말 운영수익으로만 사업단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장형 사업단을 중점 개발하려는 정책적 취지와 어긋난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 과정을 보면, 다양한 컨설팅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선정하여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기업 경영 및 마케팅과 관련한 교육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한국 노인인력개발원도 이처럼 시장형 사업단 운영 과정에 컨설팅 기관을 연계하고 마케팅 교육을 함으로써 이 사업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정책적 제언

1) 노인 일자리 전달 체계 구축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및 민간의 상호 역할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 조직의 성격이 각기 다른 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따라서 각 수행 체계를 연계하는 효율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변재관, 김창규, 2005).

노인 일자리 사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긴밀한 관계망 형성이 필요하다. 정부의 경우보다 책임 있는 정책수행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김동배, 2004).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인력 및 재정지원,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 및 인력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안정된 일자리로서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정비 등 중앙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조직을 중심으로 민간의 노인복지회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노인 일자리 사업기관 및 사회복지관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포함한 지역 노인 일자리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중점사업수행기관 육성을 통한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일선 수행기관의 확대는 물론이고 광역단위 지원 체계의 구축, 중앙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의 지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 일자리 정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유지, 개

발, 훈련, 교육, 배치의 전 과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정보화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각 기관 및 지역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개인별 최적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해지고 서비스 수급자 및 공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가 한곳의 DB로 모아 통합 관리될 수 있고 각 기관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분산된 사업 및 자원관리로 인한 낭비를 막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보장 체계

일차적으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취업노인이 일하기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확보를 위해서이다.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해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2004년도 노인 일자리 2만 5천개를 시작으로, 2015년 38만 6천개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창출하였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5). 그러나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실제 취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34%에 불과하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80~84세 노인은 17%, 85세 이상 노인은 7.3%에 불과하였다(정경희, 2011).

현재 방식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의 질적인 제고를 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소득확보이지만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급여, 9개월간의 임시적인 일자리는 소득확보보다는 여가선용의 활용, 사회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목적에 더 부합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참여자들에게 월 20만원씩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교통비와 식비에 비해 많지 않은 액수다. 그러므로 공공분야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는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유연한 형태의 근무

가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비교적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분야의 공익형 일자리 사업의 급여방식이 최저임금 이상의 형태로 제공된다면 민간분야의 경비 및 청소 직종에 구직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 노인들이 주된 취업직종 또한 노동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결하는데도 일정 정도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취업하게 됨으로써 고용의 질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 유연화로 이익을 본 고용주와 기업에 대해 고용연장과 창출,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함께 나눌 것을 요구하여 올바른 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3) 일자리의 균등

공공분야 일자리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흔히 분류되고 민간분야 일자리는 인력파견형과 시장형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 1인당 9개월간 20만원의 급여가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수행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대한노인회 시니어 클럽 등이 있다.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 역시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수행기관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 중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노인에 대한 민간분야 일자리 개발과 관리로 자리매김해 온 ‘시니어클럽’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시니어 클럽이 다양한 유형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며 복합적 기능을 하게 되면서 민간분야의 일자리 사업에 집중하게 되던 초기의 정체성을 잃었다.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는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수행기관의 입장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투입되는 노동력의 제약조건이 많은 노인을 주체로 시장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단을 창출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원래의 구도에서(현재 노인의 심각한 빈곤상황과 높은 생계비 욕구를 고려할 때) 핵심이 되어야 했던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1년의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은 공익형(129,066개), 교육형(20,317개), 복지형(45,097개) 등 이른바 공공부문 또는 정부예산부문의 일자리로 이는 전체의 90% 정도에 해당한다. 인건비가 정부예산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른바 비예산 부문의 일자리로 야기되는 민간분야(시장형, 인력파견형) 일자리의 수는 공공분야 일자리와 비교하면 그 규모는 매우 적은 편이다. 공공분야의 일자리는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출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균형을 맞추어 노인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그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과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계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있다.

더불어 민간 비영리기관 및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주체는 민간 비영리기관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배제된 계층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민간 비영리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고 이들 기관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김동배, 2004).

노인 인력만 가지고 경쟁 시장에서 생존하는 사업단을 새로 만들려는 시도보다는 지역사회별로 경제활성화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한국노인 인력개발원(본원 및 광역지부 등) 같은 핵심 수행기관은 ‘사회적 경제 체제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차 데이터를 참고한 연구로 우리나라 모든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정보 수집이 아니어서 표면적인 정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강성희. (2011).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강신옥. (2009).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충북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강은나 외. (2015). 『후기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 유형과 우울에 관한 연구』, 46(2), 229-255. 서울: 사회복지연구회.

강종수, 김옥희. (2010).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48, 279-298, 서울: 한국노인복지학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6). 『진료비 통계지표 작성기준 및 설명서』, 6.

고수현, 윤선오. (2006). 『노인복지론』. 파주: 양서원.

고재욱. (2008). 「노인 고용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행정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곽미정 외. (2016). 『노인복지론』.

권구영, 박공식. (2007).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7(3),

527-547. 한국노년학회.

권승숙. (2013). 「노인 일자리 사업의 교육만족도가 참여 효과에 미치는 영향」 : 일자리만족의 매개효과. 호서대학교 벤처전문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권중돈. (1995). 『고령자취업욕구조사』. 고령자취업알선센터.

_____. (2004).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 61-76. 서울: 한국노년학회.

권효숙. (2011). 『성공적 노화연구의 학문적 동향』, 1(0): 23-50. 뇌 교육 연구 특별호.

김금희. (2010). 「변화하는 노인 일자리 욕구와 활성화 방안」.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나리. (2016). 「경희대학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아 존중감 매개효과 검증.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전공 석사학위논문.

김남희. 최수일. (2011). 여성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이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1(11). 241-252. 한국콘텐츠학회.

김동배. (2004). 고령자 취업 적합 직종 발굴 및 수요처 개발방안: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2004년 제2차 노인 일자리 사업 포럼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김미곤. (2006).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생활실태조사』. 한국 노인인력 개발원.

김미옥. (2003). 장애 노인의 특성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 연구』 (21), 73-97. 한국노인복지학회.

김미혜, 정진경. (2002). 노인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헌신과 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활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4.

김상겸. (2009). 「노인취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진. (2015). 「농촌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완주군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향, 이신숙. (2009).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1), 309-327. 한국노년학회.

김숙자. (2000). 「농촌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독거, 비독거 노인의 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김승래. (2015).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일의 의미와 직무 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신숙. (2009).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에 따른 생활 만족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김애련. (2001).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 학위논문.
- 김애순, 윤진. (2000). 『은퇴 이후의 심리 사회적 영향-은퇴는 위기인가?』, 15(1), 174. 한국노년학회.
- 김양순. (2006). 재가노인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고찰. 『보건과 사회과학』, 19, 71-96. 한국보건사회학회.
- 김영기. (2008).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선, 강은나. (2011). 노인 일자리 사업의 건강 효과성 분석. 한국 자치행정학보. 25(3), 419-435. 서울: 한국 자치행정학회.
- 김영옥. (2009).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무료급식소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옥희. (2011).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성별 및 한,일간 비교』, 38(4), 113. 137. 사회복지정책연구원.
- 김왕기. (2011). 「농촌 노인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별 만족도 및 효과」.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순. (2005). 「노인복지와 노인정보화」: 주요 관련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2). 농촌 여성노인의 문제 및 복지정책을 위한 제언. 『노인복지연구』. 16, 175-191. 한국노인복지학회.

- 김은영. (2010). 「한서대학교 대학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의
일자리 사업 교육만족도 및 교육연구」 :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은혜. (2010). 「노인 일자리 사업이 우울감과 자립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임. (2007).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참여실태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복지복지학 석사
학위 논문.
- 김종명 외. (2009). 『사회복지정책론』. 경기: 양서원.
- 김주한. (2015).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대구한의대학교
노인의료복지학과 노인의료복지 전공 박사학위논문.
- 남기철. (2011). 한국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 (148), 12-19. 『복지
동향』. 참여연대.
- 노정옥. (2004). 「노인의 일반 및 취업 관련 특성과 삶의 만족도」 . 청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노현오. (2015).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요인 분석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책효과성 분석」 .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논문.
-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6). 『선진복지 한국의 비전과 전략』.
서울: 동도원.
- 명성혜. (2008).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강석. (2016). 「근로 노인의 빈곤 분석」. 경기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경숙. (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3(1), 103-140. 한국노동연구원.

박경하, 이현미. (2011). 『2010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박광희, 한혜경. (2002). 『농촌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 43-61. 한국노년학 연구회.

박길순. (2009). 「기초자치단체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서구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박만섭. (2016).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사례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

박세희. (2010).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에 따른 실무자의 직무 만족도 비교
연구」: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순미 외. (2009). 노인의 생활 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적 접근.
『한국사회과학연구』, 25(3), 1-24.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양숙. (2012).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의 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영미. (2015).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참여 여부와 사업 유형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우, 김춘택. (2006). 『한국노년학』. 26, (2), 243-259. 한국노년학회.

박주월. (2009).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노인취업지원 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박사학위논문.

박진우. (2015). 『고령화 시대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박현식 외(2014). 『노인복지론』. 파주: 양서원.

박희진. (2005).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정. (2009).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 성인식」 : 부천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배진희. (2004).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자녀와 이웃 지원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197-21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백준흠. (2000). 「청소년의 종교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원불교 청소년 교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원광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변재관 외. (2003). 『고령자 인력운영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11-159.
서울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실
노인 지원과.

변재관, 김창규. (2005). 『30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전략』. 2005 노인
일자리 사업 혁신포럼 자료집, 13-27. 서울: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혁신포럼.

보건복지부. (2002).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 계획』.

_____. (2005). 『2004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설문 분석 결과』.

_____. (2014).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안내』.

_____. (2016). 『노인 일자리 및 사회 지원사업의 안내 보고서』.

사혜진. (2012).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 전공 석사학위논문.

서경석. (2013).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고용효과와 복지효과」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경현 외. (2009). 노인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25, 33-56. 한국보건사회학회

서소연. (2006).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직무 만족도 연구」 .

경성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양열. (2004).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만족에 관한 연구』: 전라도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31-51. 한국노인복지학회.

서종일. (2013).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서희숙, 한영현. (2006). 재가노인의 일상생활수행 능력, 우울 및 수면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연구』, 15, 159-170. 한국노년학 연구회.

선우 덕 외. (2004). 저출산 대비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한국 노인 인력개발원』.

손해식 외. (2001). 『현대여가 사회의 이해』. 서울: 백산출판사.

송진영. (2011) 『노인복지론』. 서울: 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집.

신동면, 양기근. (2003). 고령화 사회의 노인 고용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11-128. 한국노년학회.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 보건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창원. (2008). 「시장형 노인 일자리가 생활 향상에 미치는 영향」 : 청주지역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신혜진. (2005). 「종교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종교사회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 심정영. (2006). 「노인적합형 사회적 일자리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정하 외. (2008). 『사회보장론』, 124. 고양: 공동체.
- 엄기욱. (2001). 일본의 노인복지 행정 체계. 21세기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행정 체계 개선방안정책토론회.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 오인근 외. (2009).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건강증진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1), 113-136. 한국가족복지학회.
- 오혜연. (2009).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우국희. (2007). 일(work)의 의미 변화와 사회적 공헌: 중장년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연구』, 36: 63-90.
- 원영희, 김옥. (2006).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 유성호 외. (2015). 『현대 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 유재남. (2011). 「노년기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 궤적에 관한 종단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정책전공 박사학위 논문.
- 윤민혁. (2000). 「노인 자원봉사자의 참여도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순영. (2013).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직무 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윤종구. (2004). 「노인의 취업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윤형중. (2008).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별 제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청주지역 참여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 전공 석사학위논문.

이명예. (2005). 「노인취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생활 만족도와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여성 문화 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이문국. (2009).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구의 탈 빈곤 결정요인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이봉근. (2002).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도시와 농촌간의 비교연구」 : 수원시와 순창군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 전공 석사학위논문.

이석민, 원시연. (2012).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 『한국행정학보』, 207-232. 한국행정학회.

이석원. (2008).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건강증진 효과 및 의료비 절감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이석원, 임재영. (2007: 390재인용). 노인 일자리 사업의 연차별 의료비 절감 효과. 『한국행정학보』, 41(4), 387-413, 한국행정학회.
- 이선미, 김정신. (2002). 노년기 부부의 생활 만족도와 우울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노년학』, 22, (1), 139-157. 한국노년학회.
- 이소정 외. (2012).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효과 평가. 『노인 인력개발 포럼』, (8), 181-184,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 이소정. (2013).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노인의 사회관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59). 노인복지연구.
- 이수진. (2008).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이 노인의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공익형, 복지형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수희. (2010).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에 따른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동작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승협. (2006). 고령사회의 노인소득 보장에 관한 연구: 지역 노동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1-22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이재현. (2013). 「일자리 참여 노인의 일의 의미가 자기 효능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이준우. (2009). 『노인대상의 실천 사례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관과

요양기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저먼트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이준우 외. (2011). 『60대, 새로운 시작을 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서울: 파란마음.

이준우 외. (2013).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이해와 실천』.
도서출판 파란 마음.

이지영. (2013). 「정부 노인고용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과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이 비교.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이팔환, 백남덕. (2000). 『자원봉사론』. 서울: 형설출판사.

이혜신. (2006). 「한국의 빈곤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항상 빈곤과 비 항상
빈곤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임설빈. (2012).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의 일자리 만족감,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서산시를 중심으로. 한서대
학교 정보산업 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임소영 외. (2013). 한국노인의 인간관계 유형과 건강상태의 관계: 남녀
집단별 분석. 『노인복지연구』, (59). 281-308.

임춘식. (2003).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인력 활용정책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
연구』, 22, 55-77. 한국노인복지학회.

장민지. (2011). 「평생교육 경험에 따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별 분석」.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전수경. (2009). 「노인-아동세대 통합교육형 일자리 사업 참여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해진. (2008). 「노인 일자리 사업 효과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경기지역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사회복지정책 전공 석사학위 논문

전혜정. (2004). 한국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제공과 정신건강. 『노인복지연구』, 26, 337-361. 한국노인복지학회.

정경희 외.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자. (2011). 「울산광역시 베이비부머의 노후 준비 및 생산 활동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정인숙. (2000).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성격 특성의 관계연구. 『부산여자전문 대학 논문집』, (22), 297-312. 부산여자대학.

조광희. (2010).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강릉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조규범. (2005). 「노인의 생활 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복지행정 전공 박사학위논문.

조석주 외. (2007).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조성남. (2005). 『에이지분 시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조혜원. (2011).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삶의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 접근 방법.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진광식. (2011). 「고령사회 대비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 전공 석사학위 논문.

최성재, 장인협. (2003).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 (2010).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최순남. (2007). 『현대 노인복지론』. 서울: 법문사.

최인자. (2006). 「노인 일자리 사업과 참여만족에 관한 연구」 : 전주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최희경. (2005). 빈곤 여성 노인의 생애와 빈곤 형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27), 147-174. 한국노인복지학회.

탁현우. (2015). 「일자리 사업의 복지의존에 관한 연구」 : 정책대상과
집행조직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통계청. (2008). 『경제활동부가 조사(고령층)』. 사회통계조사.

_____. (2012). 『장래 인구추계 2010-2060; 2010-2040』

한국 사랑발회 부천시 오정노인복지관. (2010).

『나, 지금 일하러 갑니다』. 서울: 학현사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2013). 『2012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1-17.

_____. (2013). 『2012년 노인 일자리 통계 동향』. 1-193.

_____. (2015). 『2015년 노인 일자리 통계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3).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고령사회 법제 워크숍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6). 노노케어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간접적
건강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료보건연구원.

한국복지행정학회. (2014). 『사회복지 정책론』. 파주: 양서원

한국의료 패널. (2015). 춘계학술대회.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현민경 교수. 『노인 일자리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한일숙. (2007). 「노인 일자리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연구」. 서울기독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함철호, 오혜연. (2010).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8), 229-250. 한국노인복지학회.

행정학 용어 표준화연구회. (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허성일. (2011).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허수정. (2009).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의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허준수. (2004).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127-151. 한국노인복지학회.

허준수 외. (2006).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연계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274-281. 한국사회복지학회.

현외성 외. (2008).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평출판사.

홍귀화. (2008). 「우리나라 농촌 노인의 소득보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홍금자. (2010). 「노인 일자리 사업이 참여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경운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황미진. (2015).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소비자 정책 동향』. 한국소비자원.

2. 국외문헌

Adelmann, p. k.(1994).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national sample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9(6) s277-s285

Atchle, R. C.(1977). The Social Force in Later Life.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in Publication.

Atchley, R. C. (1971). Retirement and leisure participation: continuity or crisis? The Gerontologist, 11(1) (part 1), 13-7

B. E. Shenfield, Social Policy for Older People(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57)

Bird, Chloe E. and Allen M. Fremont(1991). Gender, Time Use,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pp.114-129.

Blau, G. J(1986). Job Involve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Interactive Predictors of

Bull, C. N., & Aucoin, J. B.(1975).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Hagestad, G., and Neugarten, B.(1985), Age and the life course. pp.46-61, in R.H. Binstock and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2nd ed).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Havighurst, R.J.(1968). Robert J. Havighurst,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on

Haynes, S. G., A. J. McMichael, and H. A. Tyroler(1977). The Relationship of normal, involuntary retirement to early mortality among U.S. rubber worke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1. pp.105–114.

Hinde, R.A.(1979). *Towards understanding relationships*. New York: Academic.

Hooyman & Kiyak(1998). *Social Gerontology*. Boston : Allyn and Bocon, Inc.

Homans, G. C.(1974). *Social Behavior : Its Elementary Forms*. Harcourt Brace Javanovich.

Kessler, Ronald C., James S. House, and J. Blake Turner(1987). Unemployment and Health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pp.51–59.

Lowy, L. (1979).*Social work with the aging*.new York:Harper & Row.

Martin, J., and A. Doran(1966). Evidence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and retirement. *Sociological Review*. 14. p.329.

Schulz J. H, & Kenneth.(2006), *Activity theory*, *The Encyclopedia of aging* (4th Edition, Springer Pub Co)

Stephen B.Soumerai, Jerry Avorn,(1983). Perceived Health, Life Study of the Impact of Part–Time Work, *J ournal of Gerontology*, Vol.38,

No.3, pp.356–362

Susan Chmbre(1984). Is Volunteer a Substitute for Role Loss in Old Age?
An Impirical Test of Activity Theory. *The Gerontologist*, 24(3).

Tardiness and Absenteeism. *Journal of Management*, 35.

They Serve: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7(1). pp.69–79.

Waddell, G., & Burton, A. K. (2006). *Is work good for your health and
well–being?*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Wenger, G. C. (1991). A network typology: From theory to practice.
Journal of Aging Studies, 5(2), pp.147–162.

Wheeler, J. A., Gorey, K. M., and Greenblatt, B(1998). *The Beneficial
Effects of Volunteering for Older Volunteers and the People*

ABSTRACT

A study on effectiveness of Korean senior employment program

Hwang, Seul-Ki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Dept. of Policy Scie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Currently, Korea is the fastest aging society in the world. Growing number of Korean elderly deal with financial, mental, physical and social difficulty today.

Financial difficulty is called poverty, pain from loss of health is called torment of sickness, isolation from family or surrounding is called loneliness and loss of social role is called inactivity. These 4 sufferings are not just a simple elderly problem, but a significant social and financial elderly problem in Korea.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senior employment program" policy, and the problems are gradually resolvi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on solving elderly problem an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elderly. The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income supplement of wage, health condition, huma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itive influence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on income supplement, health improvement, huma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for those who participated in various type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Also, the study will be the basis of policy providing efficient senior welfare service and contribute to more efficient improvement of the program.

The study method and process is as follows. In order to achieve the study goal, the study utilized senior employment program investigation data (second data) from Seni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as statistical data. The study subjects were elderly over age 60 who participated in senior employment program in 2010, 2012, 2013 for 3 years. (No research in 2011).

As for the analysis method, the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varianc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ver 19.0 and analyzed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s the result, the type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showed significant results.

As for the result of analysis regarding the income supplement, health improvement, huma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by type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all types of program had significant result to effectiveness on income supplement, health improvement, huma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First, as for the analysis result of income supplement by types of program, public service showed the highest effectiveness while education showed the highest effectiveness in health improvement, huma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Also, manpower dispatch showed the lowest effectiveness in health improvement, huma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Second, as for the income supplement by the demographic element of participants, male, older age, lower academic level, farmland residents had showed higher effectiveness. As for health improvement, male, lower academic level and non-religious elderly showed higher effectiveness. As for the self-efficacy, it was lowest for illiterate, and highest for middle, high school or college graduate. Also, in income supplement, health improvement,

huma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by demographic elements, the service period was longer than 5 months, and showed longer period of service had higher effectiveness.

Third, as for the analysis of effectiveness of income supplement, health improvement, huma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f type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after participation, public service, education and welfare had negative influence on income supplement, but had positive influence to health improvement, human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Market did not influence income supplement and self-efficacy but to health improvement and human relationships. On the other hand, manpower dispatch had positive influence to income supplement, but negative influence to health improvement, human relationship.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effectivenes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to elderly who participated in program, and will contribute to reduction of government budget and economic development by developing proper employment by the demand of elderly.

KEYWORD : Business for senio jobs, Elderly work program, Effectiveness, participation motive, Senior employment promotion program, Quality of elderly.